

제사편

‘바가와뜨’라는 단어에 관한 설명¹⁾

경 : 바가와뜨²⁾

론 : 이제 이 단어를 설명해보자.

바가와뜨 BHAGAVAT³⁾

왜 바가와뜨⁴⁾라 불리는 것인가?

1. ‘바가와뜨’라는 단어에서 ‘바가’는 ‘공덕’⁵⁾을 의미하고 ‘와뜨’는 ‘지님’⁶⁾을 의미한다: “공덕을 지닌 자”⁷⁾.
2. 더욱이 ‘바가’는 분석력⁸⁾을 의미하고, ‘와뜨’는 교묘함⁹⁾을 나타내니, 모든 존재의 총체적

1) 이 장은 붓다를 의미하는 동명의 호칭들의 설명에 할애되고 있다. 앞에 열거한 열 가지 호칭은 붓다를 찬양하는 전통 양식이다: *bhagavāms*(世尊) *tathāgato*(如來) *'rham*(阿梨呵 *samyaksambuddho*(三藐三佛陀) *vidyācaraṇasampanak*(鞞伽遮羅那三般那) *sugato*(宿伽陀) *lokavid*(路伽德) *anuttarah*(阿耨多羅) *puruṣadamaya-sārathihh*(富樓沙曇藐-婆羅提) *sāstā*(舍多提) *devamanuṣyānām*(婆魔瑠舍喃) *buddho*(佛) *bhagavām*(婆伽婆). 우리가 소장한 『寶幢經 (*Dhvajāgrasūtra*)』의 산스크리트 교정본(Waldschmidt, *Bruchstücke*, p. 47), 빠알리 교정본 (*Samyutta*, I, p. 219) 및 한역본(*Tsa a han*, T 99, n° 981, k. 35, p. 255 b; *Tseng yi a han*, T 125, k. 40, p. 615 a) 참조.

빠알리 니까야에는 이 양식들이 꽤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Digha*, I, p. 49, III, 237; *Majjhima*, I, p. 37, 69, 179, 285, 290, 344, 336, 401, 412, 502, 521; II, p. 55, 133, 238; *Samyutta*, I, p. 219; II, p. 69; III, p. 85; IV, p. 320; V, p. I, 97, 343, 445; *Anguttara*, I, p. 168, 207; II, p. 33, 36, 66, 147; III, p. 2, 10, 30, 53, 65, 153, 212, 285, 312, 314, 341; IV, p. 3, 5, 109, 225, 270, 284, 288, 324, 406; V, p. 15, 183, 204, 329, 333, 336.

이에 반해 한역 아가마에서는 이 양식이 훨씬 드물다. 앞서 인용한 경전들은 한역 경부들과 상응하지도 않고, 이 양식이 동일한 경부의 해당 경전에서 생략되어 있다. 특히 빠알리 학파가 이 양식의 성공적 자리매김에 기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양식이 한역 아가마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Tchong a han*, T 26, n° 132, k. 31, p. 623 a; n° 146, k. 36, p. 656 c 27; n° 161, k. 41, p. 685 a; *Tsa a han*, T 99, n° 546, k. 20, p. 141 c; n° 981, k. 35, p. 255 b; *Tseng yi a han*, T 125, k. 6, p. 574 a 27; k. 14, p. 615 a. — 앞서 언급한 저작들에서도 이 양식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Lalitavistara*, p. 3; *Saddharmapundarika*, p. 17, 65, 67, 151, etc.; *Mahāvvyutpatti*, n° 1 sq.

고대 주석가들은 이 부가어들을 어원적으로 해설하고 환상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Che hao king*(T 782); *Visuddhimagga* I, p. 198~213(tr. Nyannatiloka, II, p. 313~340)의 붓다고사 해설과 *Kiai t'o o louen*, T 1648, k. 6, p. 426 c의 Upatiṣya의 주석을 비교해 보자; *Tso tch'an san Daei king*, T 614, k 2, p. 277 a의 꾸마라지바 주석; *Tch'eng che louen*의 Harivarman 주석, T 1646, k. 1, p. 242. — Hōbōgirin, *Butsu*, p. 192의 다른 출전들.

2) Bhāgavat, 婆伽婆

3) *Mahāniddeśa*, p. 142; *Cullāniddeśa*, p. 466; *Sumaṅgala*, I, p. 33~34; *Visuddhimagga*, I, p. 210~212; Hobogirin, *Bagaba*, p. 46을 비교할 것.

4) *P'o k'ie p'o*, *bhagavat*, 婆伽婆

5) qualité, quality, *bhāga*, 德

6) la possession, its possession, *guṇa*, 有

7) *Visuddhimagga*, p. 210: *yasmā lokiyalokuttarasukhā bhinibbatthakaṃ dānasilādipārappataṃ bhāgyam assa atthi tasmā Bhāgyavā ti vattabbe Bhagavā ti vuccati*. TTr. 세간의 행복과 초월적 행복을 낳는 것과 보시와 지계 등의 정상에 이른 것[이 그의 안 있다]. 하여 그를 福者(Bhāgyavā)라 불러 마땅하나 ‘바가와뜨(Bhagavā)’라 한다.

모습과 아울러 부분적 모습까지 능숙하게 설명하므로 ‘바가와뜨’라 한다.¹⁰⁾

3. 또한 ‘바가’는 영예¹¹⁾를 의미하고 ‘와뜨’는 지님이니 그 뜻은 영예를 지닌 자이다. 붓다만큼 영예를 얻은 이 아무도 없다. 전륜성왕들,¹²⁾ 제석천,¹³⁾ 브라흐마,¹⁴⁾ 로까빨라¹⁵⁾도 붓다에 미치지 못하거늘 하물며 범부들¹⁶⁾의 경우는 어떠할까? 무슨 연유인가? 전륜성왕들은 서로의 굴레에 얽매이나,¹⁷⁾ 붓다는 이미 얽매임을 끊었다. 전륜성왕들은 태어남,¹⁸⁾ 늙음,¹⁹⁾ 병듦,²⁰⁾ 죽음²¹⁾의 수렁에 빠져 있으나 붓다는 이미 이를 건넜다. 전륜성왕들은 집착²²⁾의 노예²³⁾가 되었으나, 붓다는 이미 이를 영영 떠났다. 전륜성왕들은 속세 광야²⁴⁾의 재난²⁵⁾ 한복판에 머물지만, 붓다는 이로부터 벗어났다. 전륜성왕은 무명이라는 어둠²⁶⁾ 속에 머무나, 붓다는 지고한 밝음²⁷⁾ 속에 머문다. - 전륜성왕들의 지배 영역이 대체로 넓다 해도 사대륙²⁸⁾에 그치나 붓다는 헤아릴 수 없는 세계²⁹⁾를 모두 다스린다. 전륜성왕들은 재물을 다스리지만³⁰⁾ 붓다는 마음을 다스린다.³¹⁾ 전륜성왕들은 천상의 쾌락을 탐하나,³²⁾ 존재 정점³³⁾의 행복에 이른 붓다는 아무 것도 갈구하지 않는다. - 전륜성왕들은 남들로부터 쾌락을 구하나 붓다는 마음속으로 스스로 즐긴다. 이러한 연고로 붓다가 고결한 전륜성왕들을 능가한다. 붓다는 또한 그 외의 모든 존재들, 전륜성왕들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인드라, 브라흐마, 호세천을 능가한다.³⁴⁾

8) analyse, analyze, *vibhāga*, 分別

9) adresse, skill, *kūsala*, 巧

10) *Visuddhimagga*, p. 211: *yasmā kusalādīhi bhedehi sabbadhamme...vibhattavā vibhajitvā vivarivā desitavā ti vuttaṃ hoti tasmā vibhattavā ti vattabbe Bhagavā ti vuccati*. TTr. 모든 존재를 유익함 등으로 나누는 사람으로...상술하고 나누고 열어 보이려 설하였다. 그러므로 분석하는 자라고 불려 마땅하나 바가와뜨라 부른다.

11) gloire, glory, *yaśas*, 名聲

12) Cakravartin, noble cakravartin kings, 轉輪聖王

13) Indra, 帝釋天

14) Brahmā, 梵天

15) Lokapāla, the lokapālas, 護世天

16) des hommes ordinaires, the ordinary men, *prthagjana*, 凡庶

17) entravés de liens, fettered by bonds, *bandhanasamyukta*, 與結相應

18) la naissance, the birth, *jāti*, 生

19) la vieillesse, old age, *jarā*, 老

20) la maladie, the sickness, *vyādhi*, 病

21) la mort, the death, *maraṇa*, 死

22) les affections, the passions, *anunaya*, 恩愛

23) les esclaves, enslaved, *dāsa*, 奴僕

24) la jungle humaine, the human jungle, *lokakāntāra*, 世間曠野

25) les calamités, the calamities, 災患

26) les ténèbres de l'ignorance, the shadows of ignorance, *avidyāndhakāra*, 無明

27) la lumière suprême, the supreme light, *paramāloka*, 第一明

28) quatre continents, the four continents, *caturdvīpaka*, 四天下

실제로 황금 수레 마차를 탄 전륜성왕만이 사대륙(*cāturdvīpevara*)을 지배하고 팔만 세를 누렸다 (*Kośa*, III, p. 197 참조).

29) les innombrables univers, the countless universes, *apramāṇalokadhātu*, 無量諸世界

30) la maîtrise sur les richesses, the mastery over wealth, *parīṣkāravaśitā*, 財自在

31) la maîtrise sur la pensée, the mastery over mind, *cetovāśita*, 心自在

32) les félicités célestes, the heavenly bliss, *devasukha*, 天樂

33) le bonheur du Sommet de l'existence, the well-being of the summit of existence, *bhavāgrasukha*, 有頂樂

34) surpasser, surpasse, *abhibhavati*, 勝

4. 또한 '바가'는 '부수다'³⁵⁾를 '와뜨'는 '능하다'³⁶⁾를 의미한다. 갈망,³⁷⁾ 혐오,³⁸⁾ 어리석음³⁹⁾을 부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가와뜨'라 부른다.⁴⁰⁾

[사리뿌뜨라 인연]

물음: 아르하트들과 프라트예까붓다들⁴¹⁾도 집착, 혐오, 어리석음을 부수었거늘 붓다와 어떻게 다른가?

답: 아르하트와 프라트예까붓다들이 이 삼독⁴²⁾을 부수었다곤 하지만 그 독의 여운⁴³⁾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⁴⁴⁾ 그것은 마치 병 속의 향내⁴⁵⁾ 같아 병⁴⁶⁾을 비워도 여전히 향내가 남아 있음에 비유할 수 있다. 혹은 풀 나무 쉼⁴⁷⁾을 태우는 것처럼 모두 타버려 연기⁴⁸⁾가 날아가고 없어도 재⁴⁹⁾는 남아 있음과 같은데 불기운이 감소한 탓이다. 반면 붓다에게는 삼독이 남김없이 사라지고 없다. 마치 겁이 다해 수메르산과 땅 모두가 불에 타버려 연기 한 가닥, 재 한 줌 남지 않음에 비유할 수 있겠다.⁵⁰⁾

예를 들면, 사리뿌뜨라에게는 노여움의 기운⁵¹⁾이, 난다에게는 음욕의 기운⁵²⁾이, 빨린다와스 따⁵³⁾에게는 여전히 교만의 기운⁵⁴⁾이 남아 있다. 이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다 막 풀려나 걷기

35) briser, crush, *bhaṅga*, 破

36) le pouvoir, the *ability*, 能

37) le désir, desire, *rāga*, 婬

38) la haine, hatred, *dveṣa*, 怒癡

39) la sottise, the stupidity, *moha*, 癡

40) *Visuddhimagga*, p. 210~211: *yasmā pana lobhadosa-moha - ... abhanp tasmā bhaggattā etesaṃ parissayanam Bhaggavā ti vattabbe Bhagavā ti vuccati. Ā ha c'ettha:*

Bhaggarāgo, bhaggadoso, bhaggamoho anāsavo,

bhaggā 'ssa pāpakā dhanimā : Bhagavā tena vuccatī ti.

TTr. 그런데 이분은 탐욕을 부수고 - ...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부수었기 때문에 부숨을 품은 자 (Bhagavā)라 불러 마땅하나 '바가와뜨'라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설해진다:

탐욕을 부수고 성냄을 부수고 어리석음을 부수어 번뇌를 떠났다.

모든 악한 존재를 부수었네. 하여 바가와뜨라 불린다.

41) les Pratyekabuddha, the *pratyekabuddhas*, 辟支佛

42) ce triple poison, this threefold poison, *triviṣa*, 三毒

43) les imprégnations, the latent predispositions, *vāsanā*, 氣分

44) 성인들이 미세하게 남은 번뇌(*ksīṇakleśa*)를 끊었다 해도 이들은 여전히 들뜬(掉擧, *audhatya*) 상태이다. 그리고 다른 혼습들은 번뇌의 여운에서 비롯한다. 반면 붓다는 여운마저도 완벽히 소멸하였다(*vāsanāsamudghāta*). 자신이 압도한 번뇌의 여운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Āloka*, p. 915; *Bodhisattvabhūmi*, p. 375; *Tsi louen*, T 1605, k. 7, p. 691 c; *Tsa tsi louen*, T 1606, k. 14, p. 761b15; *Sūtrālamkāra*, XXI, v. 54; *Samgraha*, p. 299~300 참조.

45) un parfum, a perfume, *gandha*, 香

46) un vase, a vase, *bhājana*, 器

47) un combustible, kindling, *indhana*, 薪

48) la fumée, the smoke, *dhūma*, 煙

49) la cendre, the ash, *bhasman*, 炭灰

50) *Kośa*, III, p. 182~185 참조.

51) les traces de haine, the traces of attachment, *rāgavāsanā*, 瞋恚氣

52) les traces d'attachement, (영역본 상응어 없음), *rāgavāsanā*, 婬欲氣

53) Pi ling k'ia p'o ts'o, Pilindavatsa, 必陵伽婆差

미세하게 남은 번뇌를 소멸시켰음에도 여전히 번뇌가 신체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인 성인들의 예. *Samgraha*, p. 300, 오백 생을 사는 동안 한 때 원승이었던 마우드갈리아나(目犍連, Maudgalyāyana), 그는 아르하트가 되어서도 음악을 들을 때면 여전히 뛰어오르곤 하였다. 이 책은 많은 생을 논다니로 살았던 프라트예까붓다의 화장 일화도 전한다(Chavannes, *Contes*, I, p. 393 참조; 목숨을 거두기 전까지 화장하는 빅슈 이야기): *Dhammapadaṭṭha*, III, p. 360~362(tr.

시작한 사람이 번거로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

이 무렵⁵⁴⁾ 붓다가 사마디⁵⁶⁾에서 깨어나 걸어가는데 라훌라⁵⁷⁾가 따라오고 있었다. 붓다가 그

Burlingame, *Legends*, III, p. 127~129)의 경청하지 않는 대중의 이야기도 볼 것. Mppś는 더 많은 예를 언급하게 되는데(k. 26, p. 251 b; k. 27, p. 260 c) 여기서는 사리뿌뜨라, 벨린다와스따, 난다의 경우를 상기시키는 데 그친다. 난다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여기에 간략히 소개해 본다.

붓다의 이복형제 난다는 Janapadakalyānī의 약혼자(혹은 Sundarī의 남편)였다. 당시 붓다가 계획을 세워 그를 까뻬라바스투 부근의 Nyagrodhārāma로 데려가 아난다에게 계를 받도록 했다. 부인과의 추억에 사로잡혀 난다는 사원을 빠져나오려 했으나 실패한다. 난다의 사랑을 치유하고자 붓다는 그를 Trāyastriṃśa 신전으로 데려가 Janapadakalyānī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요정들을 보여주었다. 난다는 기꺼이 수락한다. 그리고 일생을 사원에서 보내겠다면 이 요정들 가운데 하나를 그에게 약속한다 했다. 붓다는 Jetavana에 돌아와 제자들에게 모두 말한다. 난다는 동료들이 빈정거리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결국 사랑을 포기한 그는 바로 아르하트가 되었다. 이미 전생에 당나귀였던 난다, 그는 주인 Kappata 상인의 마구를 끌면서 암당나귀의 보상을 약속받았던 것이다.

난다 일화는 불교 『黃金傳説(Légende dorée)』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 Nāgārjunikoṇḍa와 Amarāvati(아마도 나가르주나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도시)를 묘사한 안드라의 예술가들은 이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 이 일화 전체 혹은 일부가 소개된 다른 출전들을 비교하여 그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빠알리 출전: *Vinaya*, I, p. 82; *Udāna*, III, p. 21~24(tr. Seidenstücker, p. 34~38; *Nidānakathā*, p. 91(tr. Rh. D., *Buddhist Birth Stories*, p. 128); *Samgāmāvacarajātaka*, in *Jātaka*, II, p. 92~94; *Dhammapadaṭṭha*, I, p. 96~105 (tr. Burlingame, *Buddhist Legends*, I, p. 217~223); *Theragāthā*, v. 157~158(tr. Rh. D., *Brethren*, p. 126~127); *Manoratha*, I, p. 315~318.

산스프리트 출전: *Saundarānanda* d'Āśvaghōṣa, ed. et tr. E. H. Jehnston, Oxford-London, 1928~1932; *Avadānakalpalatā*, n° X; *Sundarīmanadāvadāna*, I, p. 308~351.

한역 출전: *P'ou yao king*, T 186, k. 8, p. 536 b-c; *Fo pen hing tsi king*, T 190, k. 56, p. 911 b ~ 914 b(tr. Bbal, *Romantic Legend*, p. 369~378); *Tsa pao tsang king*, T 203(n° 96), k. 8, p. 485 c~486 c(tr. Chavannes, *Contes*, III p 87~94); *Tch'ou yao king*, T 212, k. 24, p. 739 b ~ 740 a; *Chekiap'ou*, T 2040, k. 2 p. 59 c ~ 61 b(*P'ou yao king* 재수록).

토카라이어 출전: Sieg 와 Soegling, *Tocharische Sprachreste*, n° 89-143, p. 51-74.

도상 출전: Gandhāra: Foucher, *Art Gréco-bouddhique*, I, p. 464-473, fig. 234~238. — Amarāvati: Burgess, *The Buddhist Stūpas of Amarāvati and Jaggayyapeṭa*, pl. XLI, 5; A. Foucher, *Les sculptures d'Amarāvati*, RAA, V, 1928, p. 22, pl XI, 1; A. K. Coomaraswamy, *Rūpam*, nos. 38~39(April-July, 1929), p. 73, fig. 5. — Nāgārjunikoṇḍa: J. Ph. Vogel: *The Man in the Well and some other subjects illustrated at N.*, RAA, XI, 1937, p. 115~118, pl. XXXIV~XXXV. — *Ajaṅṭā*, cave XVI.

난다는 그 아름다운 용모로 유명하다. 황금 신체, 위인의 삼십 상호. 게다가 붓다의 손가락 네 개 정도 작은 키였다. 이 장점들은 전생에 쌓은 공덕의 보상이다.

54) les traces d'orgueil, the traces of pride(*māna*), 慢氣

55) 이 이야기는 *Sarvāstivādin Vinaya*, *Che song liu*, T 1435, k. 61, p. 463 c ~ 464 a의 발췌본이다 : 붓다가 슈라와스티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바이샤(*vaiśya*)가 붓다를 초대하여 다음 날 상가에 대중공양을 올리려고 했다. 붓다는 침묵으로 수락하였다. 바이샤는 침묵으로 붓다가 수락하였음을 이해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붓다에게 절하고 돌아갔다. 밤 동안 온갖 음식을 준비한 그는 자리를 정돈하고 붓다에게 전언을 보냈다: “공양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인은 때를 알고 계시지요.” 승려들은 정갈히 차려입고 탁발 발우(*pātracivaram ādāya*)를 챙겨 바이샤의 집으로 갔으나 붓다는 사원에서 공양코자 그대로 머물렀다. 바이샤는 스님들이 자리를 정돈하고 앉은 것을 보고 청수를 돌린 후 장로들 앞에는 진수성찬을 차려 놓았다. 하지만 갖 수계를 받은 승려(*navabhikṣu*)와 사미(*śrāmaṇera*)들에게는 열엿새 된 쌀(*sālī*)밥과 지저분한 깨죽(*hou ma tila*), 익힌 채소를 내놓았다. 바이샤 무리와 상가에 진수성찬을 공양한 그 바이샤는 두 번째 청수를 돌리고 법문을 들으러 스님들 앞쪽 낮은 자리에 앉았다. 당시 라훌라는 아직 사미 신분이었다. 공양을 마친 후 그는 붓다 곁에 다가가 발 아래 절 올리고 옆에 앉았다. 부처들에게는 빅슈들의 공양 후 음식이 충분했는지를 묻는 것이 관례였다. 붓다 또한 라훌라에게 “공양 음식이 빅슈들에게 충분했는가?” 물었다. 라훌라가 답했다. “어떤 이들에게는 충분했으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부족했습니다.” 붓다가 라훌라에게 물었다.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라훌라가 답하였다. “바이샤들과 장로들에게는 진수성찬을 내놓았으나 갖 수계를 받은 승려와

사미들에게는 쌀밥과 형편없는 죽과 익힌 채소가 나왔습니다.” 당시 라훌라는 마르고 허약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붓다가 라훌라에게 물었다. “왜 그리 마르고 허약한가?” 라훌라가 다음과 같은 시절로 답하였다.

기름(*taila*) 먹는 분, 힘이 솟고;
버터(*ghṛta*) 먹은 분, 윤기가 나네;
깨와 잡풀 먹는 이, 윤기도 힘도 없네.
신들의 신 붓다는 이를 알아야 하리.

이를 알고 있던 붓다가 라훌라에게 물었다: “이 상가에서 누가 연장자인가?” 라훌라가 답하였다. “사리뿌트라 화상(*upādhyāya*)입니다.” 붓다가 말했다. “사리뿌트라 빅슈에게는 [남들보다 더 풍요하게] 공양할 권리가 없었느니라.” 사리뿌트라 존자(*āyusma*)는 자신에게는 공양할 권리가 없다고 붓다가 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곧 바로 음식을 토해내고 나가버렸다. 죽을 때까지 그는 상가의 모든 공양과 보시를 거부하였다. 그는 걸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귀족들과 바이샤들은 상가에 저녁 공양을 올리고 싶어 했다. 그 가운데 사리뿌트라가 동참하기를 원하던 이들은 붓다에게 말했다. “붓다께서 사리뿌트라에게 우리의 초대에 응하라고 명해주시지요.” 붓다가 이들에게 답했다. “사리뿌뜨리가 그대들의 초대에 응하라고 청하지 마오. 그 고집은 매우 강합니다. 그는 자신이 받아들인 것은 지키고 거부한 것은 방기합니다. 그는 당신들 덕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의 고집은 이미 과거부터 그가 지녀온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과거 생애 어느 왕국의 왕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뱀 독에 물린 상처를 치료할 줄 아는 스승이 주술을 부려 솟염소(*chö k'ie lo, chāgala*)로 독사를 유인했습니다. 그는 미리 큰불을 지펴놓고 있었지요. 그가 독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불속으로 들어가겠느냐 아니면 독을 다시 빨아들이겠느냐?” 독사는 이렇게 생각했지요. “이제 내 독은 다했거늘 살아서 무엇하랴? 그러니 빨아낸 것을 다시 삼키라 독촉하지만 나는 삼킬 줄도 모르거니와 차라리 불구덩이로 뛰어들어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뱀은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붓다가 상가에 말했다. “이 뱀이 오늘의 사리뿌트라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 자신이 받아들인 것은 지키고 거부한 것은 방기합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같은 일화가 *Wen fen liu, Mahīśāsaka Vinaya*, T 1421, k. 29에 소개되나 두 부분으로 나뉜다. 붓다에게 터놓은 라훌라의 불만은 p. 179 b-c에 보인다. 그런데 불구덩이에 몸을 던진 뱀의 변론은 p. 173 c에 있다.

빠알리 『吐毒本生譚(*Visavantajātaka*)』(*Jātaka* n° 69, I, p. 310) 역시 사리뿌뜨라의 고집불통의 증거로서 뱀의 변론을 언급하지만 도입부는 완전히 다르다: 사람들이 밀 케익을 사원에 가져왔다. 당시 사원에 머물던 승려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 나머지는 출타 중인 승려들을 위해 남기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렇게 실행했는데 사리뿌뜨라의 어린 도반은 사원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몫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리뿌뜨라가 먹어 치운 것이다. 혼란스러워진 사리뿌뜨라는 이제는 밀 케익을 먹지 않겠노라 선언한다(*ito paṭṭhāya piṭṭakhādanīyaṃ na khādissāmi*). 사리뿌뜨라의 옹고집을 이해시키려 붓다는 한 예로 뱀의 변론을 설했다. 빠알리 경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tīte Bārānasiyaṃ Brahmadaṭṭe rajjaṃ kārente Bodhisatto pi(역시) visavejjakule(독) nibbattivā vejakammena jīvikam kappeti. Ath' ekaṃ janapadamanussaṃ sappo ḍasi. Tassa nātakā pamādaṃ akatvā khippaṃ vejjaṃ ānayaṃsu. Vejjo āha: "kin tāva osadhena paribhāvītvā viṣaṃ harāmi daṭṭhasappaṃ āvāhetvā daṭṭhāṭṭhānato ten' eva viṣaṃ ākaḍḍhāpemiṭi" āha. "Sappaṃ āvāhetvā viṣaṃ ākaḍḍhāhīti". So sappam(뱀) āvāhetvā "Tayā ayaṃ daṭṭho" ti āha. "Āma mayā" ti. "Tayā daṭṭhāṭṭhānato tvaṃ yeva mukhena viṣaṃ ākaḍḍhāhīti" "Mayā ekavāraṃ jahitaviṣakaṃ puna na gahitapubbaṃ, nāham mayā jahitaviṣaṃ kaḍḍhissāmiṭi". So dārūni āharāpetvā aggim katvā āha: "sace attano viṣaṃ nākaḍḍhasi imaṃ aggim pavisā" ti. Sappo "apī aggim pavissāmi na c'attānā ekavāraṃ jahitaviṣaṃ paccāvamissāmiṭi" vatvā imaṃ gātham āha:

*Dhi-r-atthu taṃ viṣaṃ vantaṃ yam ahaṃ jīvitakāranā
vantaṃ paccāvamissāmi, matam me jīvitā varan ti.*

Evañ ca pana vatvā aggim pavisitum pāyāsi. Atha naṃ vejjo nivāretvā naṃ purisaṃ osadhehi ca mantehi ca nibbisaṃ ārogaṃ katvā sappassa silāni datvā "ito paṭṭhāya mā kañci vihethēhīti" vissajjesi.

TTr. 옛날 옛적, 브라흐마다따 왕이 바라나시를 지배하고 있을 때 보디삿뜨와는 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의사 집안에 태어났다. 그리고 성장하여 그 치료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때 어느 촌부가

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몸이 야위었는가?⁵⁸⁾” 라훌라가 계송으로 답하길,

기름⁵⁹⁾을 먹으면 힘이 솟고,
버터⁶⁰⁾를 먹으면 윤기가 나지만,
마나 잡풀⁶¹⁾을 먹으면 힘도 윤기도 없다네.
거룩한 분 바가와뜨라면 마땅히 이 사실을 알아야하리.

붓다가 라훌라에게 물었다. “이 교단의 상좌⁶²⁾는 누구인가?” 라훌라가 “사리뿌뜨라 화상입니다”라고 답했다. 붓다가 말했다. “사리뿌뜨라는 부정한 음식⁶³⁾을 먹고 있다.” 때마침 돌아와 있던 사리뿌뜨라가 이 말을 듣자마자 입에 든 것을 바로 내뱉고는 다음과 같이 맹세했다. “오늘 이후 다시는 초대⁶⁴⁾에 응하지 않으리라.” 그러자 프라세나지트⁶⁵⁾와 수다타⁶⁶⁾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붓다가 초대를 거절하는 법은 없소. 거룩한 분 사리뿌뜨라 당신마저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 재가자들⁶⁷⁾은 어찌 거룩한 신앙의 청정함⁶⁸⁾을 얻으리요?” 사리뿌뜨라가 답했다. “나의 큰 스승 붓다 말씀이 ‘사리뿌뜨라가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시니 이제 더 이상 초대에 응할 수 없지요.” 그러자 프라세나지트 등이 붓다에게 가서 아뢰길 “붓다도 이제 초대에 응하지 않으시고, 사리뿌뜨라 또한 거절하니 이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신앙⁶⁹⁾이 일어날 수 있단 말ियो? 붓다께서 사리뿌뜨라에게 다시 초대에 응하도록 해주옵소서.” 붓다가 답했다. “사리뿌뜨라의 결심이 견고하여 돌이킬 수 없다오.” 그리고 나서 붓다는 다음과 같은 본생 인연들⁷⁰⁾에 얽힌 이야기들 중 하나를 인용하였다. “옛날 어느 나라에 독사⁷¹⁾에 물린 왕이 있었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 훌륭한 의사들을 불러 독을 치료하게

뱀에 물리자 친지들이 즉시 그 의사를 불러왔다. 보디삿뜨와가 말했다. “해독제로 독을 빼낼까요, 뱀을 잡아 상처의 독을 빨아내게 할까요?” “뱀을 잡아 독을 빼내게 합시다.” 그래서 그는 뱀을 잡아 와 뱀에게 물었다. “사람을 물었나?” “그렇다. 내가 그랬다.”하고 뱀이 답했다. “그렇다면 다시 상처에서 독을 빨아내시지.” “뭐라고? 내가 뱀어낸 독을 다시 빨아내라고?”라고 뱀이 소리 질렀다. “나는 그런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 그러자 의사가 나무에 불을 붙이고 뱀에게 말했다. “독을 빨아내 거라, 아니면 불속에 들어가든지.” “불속에 들어가갈지언정 한번 뱀어낸 독을 다시 빨아낼 수는 없다.”라고 뱀이 말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계송으로 반복했다.

“한 번 뱀어낸 독이 부끄러워지네.

목숨 부지코자 다시 독을 빨아내라니!

매수된 나약함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네.”

이렇게 말하며 뱀은 불을 향해갔다. 하지만 의사는 그 길을 막고 약초와 주문으로 독을 뽑아내어 사람이 완치되었다. 그리고 나서 뱀에게 율법을 펼치고 뱀을 풀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는 그 누구도 해치지 말지어다.”

56) le concentration, *samādhi*, 禪

57) Lo heou lo, Rāhula, 羅睺羅

58) maigre, thin, *kṛīṣa*, 羸瘦

59) de l'huile, oil, *taila*, 油

60) du beurre, butter, *ghṛta*, 酥

61) de mauvais légumes, bad vegetables, 滓菜

62) le doyen, the elder. *upādhyāya*, 上座

63) des aliments impurs, *aviśuddhāhāra*, 不淨食

64) l'invitation, the invitation, *adhyesana*, 人請

65) Prasenajit, Po sseu ni, 波斯匿

66) Sudatta, 須達多

67) les laïcs, lay people, *avadātavasana*, 白衣

68) la grande pureté de foi, the great purity of faith, *śraddhāviśuddhi*, 信清淨

69) une foi, a faith, *śraddhā*, 信

70) LE vies antérieures, the previous lives, *ātakanidāna*, 本生因緣

하였다. 의사들은 뱀에게 독을 다시 삼켜 독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때 의사들이 주술⁷²⁾을 부려 왕을 문 뱀을 부르자 뱀이 왕 있는 곳으로 왔다. 장작을 쌓아 불을 지피고 뱀에게 독을 빨지 않으려면 불 속으로 불길로 들어갈 것을 명하였다. 독사는 ‘한 번 뱀은 독을 어찌 다시 삼키라는 건가. 차라리 불 속으로 뛰어들고 말지.’ 라고 말하고 결심이 서자 불길로 뛰어들었다. 이때의 뱀이 바로 사리뿌뜨라였다. 여러 세상을 거치면서 결심이 확고해져⁷³⁾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⁷⁴⁾”

또한 장로 뿔린다와스따는 늘 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는 걸식하러 가기 위해 규칙적으로 갠지스를 건넜다. 강가에 도착하면 그는 손가락을 튕겨대며 갠지스를 향해 말하곤 했다. “노비 자식아, 흐름을 멈추거라!” 그러곤 갈라진 물 벽 사이를 지나 걸식을 다니곤 했다. 갠지스 신이 붓다를 찾아와 하소연하며 말했다. “붓다의 제자 뿔린다와스따가 늘 저를 모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노비 자식아⁷⁵⁾, 흐름을 멈추거라!’” 붓다가 뿔린다와스따에게 말했다. “갠지스 신에게 그대의 잘못을 참회하라.”⁷⁶⁾ 그러자 뿔린다와스따가 합장하며 갠지스 신에게 말했다. “노비 자식아, 노하지 말거라. 내가 잘못을 참회하노라” 이에 대중들이 웃었다. “어찌 참회하면서 그 상대에게 ‘노비 자식’이라 하며 모욕을 주는가?” 그러자 붓다가 갠지스 신에게 말했다. “그대는 이 뿔린다와스따가 두 손 모아 잘못을 참회하는 것을 보는가? 그대에게 사과하고 있기에 그대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대를 무시⁷⁷⁾해서가 아니니 그의 죄가 아님을 알라. 이 사람은 오백 생 내내 브라흐만 가문에서 태어났기에 늘 거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겨 왔느니라. 예전에 쓰던 말버릇이 습이 되어 그렇지, 그의 마음이 오만한 것 아니다.”

이와 같이 아르하트들은 비록 속박⁷⁸⁾을 끊었다 해도 그 기운⁷⁹⁾은 남아 있다. 하지만 부처 바가와뜨들 모두는 누가 칼로 그 팔을 끊고 전단향⁸⁰⁾을 팔에 발라주더라도 눈썹을 찌푸리거나, 그 마음에 미움⁸¹⁾이나 사랑⁸²⁾이 일어나는 법이 없다. 그들의 남은 기운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이다.

잔췌⁸³⁾라는 바라문 여인이(Brāmaṇī) 자신의 발우를 차고 와 대중⁸⁴⁾ 한복판에서 붓다를 비방하길, “날 임신시켜 놓고 이제 와서는 왜 매정하게 옷도⁸⁵⁾ 음식⁸⁶⁾도 주지 않는 것이오?” 그녀는 남들을 속이기 위해 뻔뻔하게⁸⁷⁾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자 오백이나 되는 브라흐만 스승이라는 자들 역시 손을 들이대며 고함을 질러댔다. “그래 맞아,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지.” 이런 상황에서도 붓다는 안색 하나 변함없이 부끄러운 기색을 비치지 않았다. 이 계략의 실체가 드러나 땅이 크게 요동하니 브라흐만 모두 붓다를 찬양하며 꽃으로 장엄하였

71) un serpent venimeux, a poisonous snake(*sarpa*), 毒蛇

72) de formules magiques, magical formulas (*mantra*), 呪術

73) fermes, firm, *dhruva*, 堅

74) inébranlables, unchangeable, *acala*, 不可動

75) Vatsala(petit esclave), Vatsala(little slave), 小婢

76) Confesse ta faute, Apologize for your fault, *deśana kāraṇiyā*, 懺謝

77) par mépris, out of malice, *avamāna*, 無慢

78) les entraves, the fetters, *saṃyojana*, 結

79) les traces, the traces, *vāsanā*, 氣

80) l'oigne de santal, sandalwood oil, *candana*, 栴檀香

81) haine, hatred, *dveṣa*, 憎

82) amour, love, *anunaya*, 愛

83) Tchan tchö, Ciñcā, 栴闍

84) la grande assemblée, the great assembly, *mahāsaṃgha*, 大眾

85) des vêtements, clothing, *vastra*, 衣

86) de la nourriture, food, *āhāra*, 食

87) sans vergogne, shamelessly, *lajjā*, 無羞

다. 하지만 브라흐만이 붓다의 품성을 찬양할 때도 붓다는 기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⁸⁸⁾ 그리고 마맥⁸⁹⁾ 먹을 때조차 붓다는 어떠한 서글픔도 느끼지 않았지만⁹⁰⁾, 천신들⁹¹⁾의 왕이 보

88) Dhammapadaṭṭha에 의하면 이단 의사들이 붓다의 명성을 잃게 하기 하려고 자신들의 교파의 젊은 수도녀 잔짜에게 말하길, 붓다의 사원에 가서 며칠 밤을 보낸 척하고 자신이 붓다와 방을 함께 썼다는 소문을 퍼뜨리라 했다. 그녀는 배를 린네르 천(*pilotika*)으로 가려 임신한 듯 꾸미기까지 했다. 그리곤 배에 목판(*dārumaṇḍalika*)을 두르고 붓다가 설법할 상가로 잠입하여 붓다가, 잔인하게 자신을 버리고 태어날 아이에게 무관심하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붓다는 평온을 유지했다. “만약 그대의 말이 사실이면 아니건 이를 아는 사람은 그대와 나 둘뿐이로다.” 이때 인드라가 네 명의 천자와 함께 등장하였다. 이들은 생쥐(*mūsika*)로 변하여 목판을 잡아맨 끈을 감아댔다. 목판이 떨어지고 찢짜의 간계가 드러나자 그녀는 부끄러워 도망가고 대중이 그녀를 쫓아갔다. 그녀 발길이 닿은 땅이 갈라지자 그녀 몸 전체가 불꽃에 휩싸이며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판본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찬다마나(*Chaṇḍamanā*)라고도 불리는 바라문 여인 찢짜, 오만한 여인, 하오추(*Haocheou*), 아름다운 얼굴, 혹은 허가 여럿인 이 여인은 께사캄발라(*Keśakambala*)의 제자인 이교 수도녀라고도 하고 탈선 불교 빅슈니라고도 한다. 어떤 출전에 의하면 그녀는 별을 받지도 않았으며, 또 다른 출전에는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불에 타죽었지만, 붓다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녀는 추방되었을 뿐이다. *Dhammapadaṭṭha*, III, p. 178~183(Burlingame, *Legends*, III, p. 19~23; Kern, *Histoire*, I, p. 161~164; *Jātaka*, III, p. 298; IV, p. 187~189; *Apadāna*, I, p. 299; *Itivuttaka* 주석, I, p. 69; *Udāna* 주석, p. 263 sq.; *Cheng king*, T 154 (no. 9), k.1, p. 76 a~b; *Hing k'i hing king*, T 197(n° 8), k. 2, p. 170 c; *Pen k'i king*, T 199, p. 201 c 19; *Ta pao tsi king*, T 310, k. 28, p. 154 c 18; *P'ou sa t'ou t'ai king*, T 384, k. 7, p. 1055 c; *Ken pen chouo... yao che*, T 1448, k. 18, p. 95 b; *Fa hien tchouan*, T 2085(tr. Legge, p. 60); *Hiuan-tsang, Si yu ki*, T 2087, k. 6, p. 900 a(tr. Beal, II, p. 9; tr. Watters, *Travels*, I, p. 392) 참조.

Mppś에 반하는 몇몇 이론에 따르면 잔짜의 비방은 아홉 죄(九罪)에 대한 붓다의 벌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w, k. 9, p. 121 c 참조.

L. Feer, *Ciñcā-mānavikā Sundarī*, JA, Mars-April, 1897, p. 288~317을 볼 것.

89) du blé de cheval, oats, 馬麥(*ma me*), *yavā*

90) 붓다 수행 십이 년째 웨란자(*Verañja*)라는 브라흐만-한역 출전들에서는 종종 아니다따(*Agnidatta*)라 불리는-이 붓다를 방문했다. 그는 붓다에게 연장자들에게 인사를 올리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장노들에게 일련의 질문을 던지고 나서 붓다와 승려들에게 우기를 웨란자에서 보낼 것을 제안하였다. a (cf. *Vinaya*, III, p. 1~6; *Anguttara*, IV, p. 173~179; *Tchong a han*, T 26(n° 157), k. 40, p. 679 b ~ 680 b)

붓다가 오백 승려와 웨란자에 갔을 때 당시 그 지역 왕이기도 한 브라흐만은 붓다를 자신의 성에서 영접하지 않았다. 그는 지나친 쾌락에 빠져 있었다. 몇몇 출전에 의하면 마라가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였다고 한다. 기근이 한창인지라 승려들은 결식을 나가 빈 발우로 돌아왔다. 중국 출전에 의하면 마상들(*aśvavañji*-)이 이들에게 마맥(*ma me*)-빠알리 출전에 의하면 ‘빠타에 쟈 마른 풀(*patthapatthamūlaka*)-을 제공하였다. 석 달 동안 승려들은 조악한 음식에 만족해야 했으나 붓다가 이를 먹을 때 천신들이 붓다가 뜨는 한 술 한 술 모두 풍미(*ojā*)를 제공해주었다. 석 달이 다 되어 가자 붓다는 일명 아니다따로 불리는 웨란자에게 자신의 출발을 알렸다. 그러자 왕은 자신의 홀대를 사과하고 향연을 베풀고 모두에게 선물을 주었다. 『아빠다나(*Apādana*)』 I, p. 300에 의하면 붓다는 그의 전생에 뿌사 부처(*Buddha Phussa*, 弗沙佛)였을 당시 승려들의 쌀 섭취를 방해하고 그들에게 귀리를 권해 석 달 동안 별 받은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경전에 그러나 서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 빠알리 출전: *Vinaya*, II, 1~11 (tr. Horner, I, p. 1-1); *Dhammapadaṭṭha*, II, p. 153~157(tr. Burlingame, *Legends*, II, p. 193~194); *Cullasukajātaka(Jātaka* 430, III, p. 494~495; *Apadāna*, I, p. 300, v. 25~26; *Milinda*, p. 231; *Samantapāsādikā*, I, p. 176 sq.; *Suttanipāta* 주석, I, p. 154; *Udāna* 주석, p. 265. - 한역 출전: *Vinayas, Che song liu*, T 1435, k. 26, p. 187 b ~ 189 a; *Wou fen liu*, T 1421, k. 1, p. 1~2; *Sseu fen liu*, T 1328, k. 1, p. 568 c ~ 569 c; *Ken pen chouo... yao che*, T 1448, k. 18, p. 96 a 13~14. *Ta fang pien fo pao ngen king*, T 156, k. 3, p. 137 a 6~7; *Tchong pen k'i king*, T 196(n° 15), k. 2, p. 162 c~163 c; *Hing k'i hing king*, T 197(n° 9), k. 2, p. 172 a~c; *Ratnakūta* in *Ta pao tsi king*, T 310, k. 28, p.154 c 20~21; *P'ou sa tch'ou t'ai king*, T 384, k. 7, p. 1056 a; *Ta tche tou louen*, T 1509, k. 9, p. 121 c; k. 27, p. 261 a; k. 38, p. 341 b; *King liu yi siang*, T 2121, k. 5, p. 20 a~c.

동일한 브라흐만은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될 일화(Mppś, k. 22, p. 225 a~b)에 다시 등장한다: 이들

상으로 백 가지 양식⁹²⁾을 그에게 제공했을 때도 이로 인한 어떤 기쁜 마음도 일으키지 않았다.⁹³⁾

붓다의 생각은 오직 하나,⁹⁴⁾ 둘일 수 없었다.⁹⁵⁾ 모든 것에 있어, 무엇이건 간에, 먹고 마실 거리,⁹⁶⁾ 옷과 덮을 거리,⁹⁷⁾ 침구와 자리,⁹⁸⁾ 칭찬과 비난,⁹⁹⁾ 멸시와 공경¹⁰⁰⁾에도 붓다는 개의치 않았다. 마치 순금을 불에 달궈 녹이고 두드려도 늘거나 줄어들지 않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다. 반면 아르하트들은 속박을 끊고 길을 찾긴 하였어도 그 기운이 여전하여 바가와뜨라 할 수 없느니라.

물음: 바가와뜨의 이름은 하나일지라도 붓다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붙지 않는가.

답: 붓다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기에 그 이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이름들은 붓다의 위대함 모두를 포함하는데, 사람들이 붓다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붓다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니, 따타-가따 등이다.

동안 이 브라흐만은 계속 붓다의 발우를 채웠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인내심을 상실한다: 붓다는 몇 발자국 떨어져 꾸준한 보시를 찬양한다. 브라흐만이 한 번 더 발우를 채웠다. 하지만 붓다는 설법의 결과물로서의 보시를 거부한다. 아무도 먹을 수 없게 되어 브라흐만이 이 공양물을 강물에 집어 던지자 강물이 끓기 시작하였다. 이 기적에 놀란 브라흐만은 불자가 되었다.

이 두 번째 일화를 슈라바스티의 *P'o lo ouo che* 혹은 바라드바자(Bhāradvāja, 跋羅憍闍, 저명한 브라흐만 부족 이름; *Malalasekara*, II, p. 373 참조)의 집에서 발생한 일로 묘사하는 Mppś는 이에 관한 정보를 *Samyuktāgama*, T 100(n° 80), k. 4, p. 401 b~c의 번역에서 취한 듯하다. 여기에 등장하는 브라흐만 이름도 *P'o lo t'ou chō*(Bhāradvāja)이다. — 이와 대조적으로 완역 *Samyuktāgama*, T 99(n° 1157), k. 42, p. 308 a~b의 주인공은 라자그리하 출신 브라흐만 *Houo yu*(86: 134 및 8)이다. 혹은 *Houo yu*는 웨란자 출신의 브라흐만 아니다따(Agnidatta)의 축자역이다. — 마지막으로 빠알리 쌍웃따(*Samyutta pāli*) I, p. 174~174에 상응하는 구절에서 이 브라흐만의 이름은 *Udaya*이다. 이 모든 것을 토대로 Bhāradvāja, Agnidatta-Verañjā 및 Udaya는 동일인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붓다고사가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고 *Samantapasādikā*, I, p. 111에서 브라흐만의 실명은 Udaya인데 웨란자에서 태어나고 자라 웨란자로 불린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웨란자에서 붓다에게 마맥을 먹이고, 슈라와스티 혹은 라자그리하에서 발우를 사흘 채운 브라흐만의 개인 이름은 *Udaya*, 부족 이름은 *Bhāradvāja*, 그의 성은 *Verañjā*이다(웨란자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브라흐만으로서 불을 숭배하였으므로) *Agnidatta*라 불렸다.

마지막으로 *Mahāvastu*(III, p. 108, l. 17~109, l. 4)는 *Samyutta*, I, p. 174에서 Udaya에게 설해진 계승을 Udayin의 말로 상정하고 있음에 주목하자. 아무래도 이것은 오류로 보인다.

91) les dieux, the gods, *deva*, 諸天

92) la nourriture aux cent saveurs, food of one hundred flavors, *āhāra śatarasasampanna*, 食百味

93) 신들은 종종 붓다가 취하는 음식에 자양(*ojā*)의 가치를 보강한다. *Milinda*, p. 231 참조: *sabbakālaṃ, bhante Nāgasena, Tathāgate bhūñjamāne devatā dibbaṃ ojaṃ patte ākiranti*. TTr. 나가세나 존자여, 여래가 음식을 먹을 때 항상 범천들이 그 음식에 하늘의 자양을 뿌렸다는 것인가?

그리고 *Milinda*에 의하면 신들은 이렇게 웨란자에서 붓다의 건강을 유지시켰다. *Majjhima*, I, p. 245; *Lalitavistara*, p. 264를 보면 신들은 보디삿뜨와에게 모공으로 기력을 불어 넣으라 충고한다: *te romakūpair ojaḥ prakṣhepsyāmaḥ*.

94) une pensée unique, single-minded, *ekacitta*, 一心

95) sans dédoublement, without duality, *advaya*, 無二

96) nourriture et boisson, food and drink, *āhāra*, 飲食

97) vêtements et couvertures, robes and clothing, *paṭavasana*, 衣被

98) literies et sièges, beds and seats, *śayāsana*, 臥具

99) louange et blâme, praise and blame, *varṇanavijrmbhā*, 讚呵

100) mépris et respect, mistrust and respect, *viṭaṇḍanagaurava*, 輕敬

라는 뜻이다. 계송에 이르길,

붓다는 인내¹¹³)를 갑옷¹¹⁴) 삼고,
기운¹¹⁵)을 투구¹¹⁶) 삼고,
도덕¹¹⁷)을 큰 말¹¹⁸) 삼고,
법열¹¹⁹)을 훌륭한 활¹²⁰) 삼고,

지혜¹²¹)를 훌륭한 화살¹²²) 삼아,
밖으로 마왕¹²³) 군대 격파하고,
안으로 고뇌¹²⁴)와 그 적군¹²⁵) 멸하니,
그 이름 아르하뜨라 하노라.

2. 또한 ‘아’¹²⁶)는 부정을 ‘라하트’¹²⁷)는 “태어남”을 의미하니, ‘태어나지 않음’¹²⁸)을 뜻한다. 붓다의 마음¹²⁹)의 씨¹³⁰)가 후세의 밭¹³¹)에 다시 싹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붓다에게는 무지¹³²)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3. 마지막으로, ‘아르하뜨’는 ‘공양’¹³³)을 ‘받을 만함’¹³⁴)을 의미한다. 모든 속박¹³⁵) 끊고, 일체지¹³⁶)를 얻었으니 일체 천지 존재의 공양을 받을 가치가 있다. 이런 연유로 붓다는 아르하뜨

110) *hat*, 呵

111) *tuer*, kill, *han*, 殺

112) *le tueur d'ennemis*, the killer of enemies, 殺賊

Vissuddhimagga, p. 198 참조: *Te ca anena kilesārayo maggena hatā ti arīṇaṃ hatattā pi arahaṃ*. TTr. 이 부정한 것들의 원인으로서의 적들을 도로써 죽였다. 이처럼 적들을 죽였기에 아르하뜨이다.

113) *la patience*, the patience, *kṣānti*, 忍

114) *la cuirasse*, the armor, *varman*, 鎧

115) *l'énergie*, the energy, *vīrya*, 精進

116) *le casque*, his helmet, *sīrṣaka*, 剛甲

117) *la moralité*, the discipline, *śīla*, 持戒

118) *le grand cheval*, his great steed, *mahāśva*, 大馬

119) *l'extase*, *dhyāna*, 禪定

120) *l'arc*, his bow, *dhanus*, 良弓

121) *la sagesse*, the wisdom, *prajñā*, 智慧

122) *les flèches*, his arrows, *śara*, 好箭

123) *l'armée de Māra*, the army of Māra, *mārasena*, 魔王軍

124) *les passions*, the passions, *kleśa*, 煩惱

125) *ses ennemies*, his enemies, 賊

126) *A*, 阿

127) *rahat*, 羅呵

128) *non-né*, unborn, 不生

129) *the mind of the Buddha*, la pensée du Buddha, *buddhacitta*, 佛心

130) *les germes*, the seeds, *bija*, 種子

131) *le champ des renaissances*, the field of rebirths, *punarbhavakṣetra*, 後世田

132) *l'ignorance*, the ignorance, *avidyā*, 無明

133) *un culte*, worship, *pūja*, 供養

134) *digne*, worthy, *arhat*, 應受

135) *les entraves*, the fetters, *saṃyojana*, 結

136) *l'omniscience*, the omniscience, *sarvajñāta*, 一切智慧

라 불린다.¹³⁷⁾

삼막삼붓다 SAMYAKSAMBUDDHA

또한 삼막삼붓다¹³⁸⁾라고도 불린다. 왜 그러한가?

‘삼막(samyak)’은 완벽하게,¹³⁹⁾ ‘삼(sam)’은 ‘충분히’,¹⁴⁰⁾ ‘붓(budh)’은 ‘인지하다’¹⁴¹⁾를 뜻하니, 모든 법을 완전하고 충만하게 깨달은 자를 뜻한다.¹⁴²⁾

물음: 그는 어떻게 완전하고 충만하게 모든 법을 아는가?

답: 그는 고통¹⁴³⁾을 고통 그대로¹⁴⁴⁾ 알고
그는 근원¹⁴⁵⁾을 근원 그대로¹⁴⁶⁾ 알고
그는 사라짐¹⁴⁷⁾을 사라짐 그대로¹⁴⁸⁾ 알고
그는 길¹⁴⁹⁾을 길 그대로¹⁵⁰⁾ 안다.

이런 연유로 붓다는 삼막삼붓다로 불린다.

2. 또한 그는 모든 존재들이 실제로 변하지 않음을,¹⁵¹⁾ 늘거나 줄어들지 않음을¹⁵²⁾ 알고 있다. 어찌하여 존재들은 모두 변치 않는다는 말인가? 마음 기능¹⁵³⁾이 멈추고,¹⁵⁴⁾ 사라지고,¹⁵⁵⁾ 말의 길¹⁵⁶⁾ 끊어지면, 붓다는 니르바나 그 자체처럼 모든 존재들마저 움직이지 않음을¹⁵⁷⁾ 알

137) *Visuddhimagga*, p. 201: *Aggadakkhineyyattā ca cīvarādipaccaye arahati pūjāvisesañ ca, ten' eva ca uppanne Tathāgate ye keci mahesakkhā devamanussā na te aṇṇattha pūjāṃ karonti.* (TTr. 그는 최고 영예의 선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에, 승려 의상 및 여타 승려의 삶과 특별한 공경에 따르는 여타 물질적 기반을 받을 만하다.) - 유일하게 이 어원적 해설만이 가치를 지닌다.

138) *San miao san fo t'o, samyaksambuddha*, 三藐三佛陀

139) parfaitement, perfectly, *samyak*, 正

140) pleinement, fully, *sam*, 遍

141) connaître, understanding, *budh*, 佛

142) *Visuddhimagga*, p. 201 참조: *sammā sāmañ ca sabbadhammāṇaṃ pana buddhattā sammāsambuddho.* TTr. 모든 법을 스스로 깨달아 삼마삼붓다이다.

143) la douleur, the suffering, *duḥkha*, 苦

144) comme douleur, as suffering, *duḥkhalakṣaṇa*, 如苦相

145) l'origine, the origin, *samudaya*, 集

146) comme origine, as origin, *samudaya*, 如集相

147) la destruction, the cessation, *nirodha*, 滅

148) comme destruction, as cessation, *nirodha*, 如滅相

149) le Chemin, the Path, *mārga*, 道

150) comme Chemin, as the Path(*mārga*), 如道相

151) inaltérables, unchangeable, *abheda*, 不壞相

152) sans augmentation ni diminution, without increase or decrease, 不增不減

153) le fonctionnement de la pensée, the functioning of the mind, *cittapravṛtti*, 心行

154) arrêté, stopped, *sthita*, 處

155) détruit, destroyed, *niruddha*, 滅

156) le chemin du discours, the path of speech, *abhilāpamārga*, 言語道

157) immobiles, motionless, *acala*, 不動

우리는 대승 학파가 ‘saṃsāra = nirvāṇa’ 등식을 인정함을 알고 있다. *Madh. vṛtti*, XXV, v. 19~20, p. 535(Stcherbatsky, *Buddhist Nirvāṇa*, p. 205; Lav., *Madhyamaka*, MCB, II, 1933, p. 29; *Lañkāvatāra*, p. 42.; *Madhyāntavibhaṅga*, p. 160; *Samgraha*, p. 127, 265 참조.

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삼막삼붓다라고 불린다.

3. 마지막으로 열 방향¹⁵⁸⁾으로 펼쳐진 온갖 세계들¹⁵⁹⁾의 언어¹⁶⁰⁾, 여섯 운명¹⁶¹⁾에 포함되는 존재들¹⁶²⁾의 명호, 존재들의 전생 내력,¹⁶³⁾ 미래¹⁶⁴⁾에서의 태어날 곳¹⁶⁵⁾, 모든 공간의 존재들의 마음의 특성¹⁶⁶⁾, 그들의 속박,¹⁶⁷⁾ 그들의 선한 뿌리¹⁶⁸⁾, 그들의 벗어나는 길¹⁶⁹⁾. 이 온갖 법을 모두 상세히 알고 있으므로 그를 삼막삼붓다라 한다.

위드야짜라나삼빠나 VIDYĀCARAṆASAMPAṆNA

또한 그는 ‘위드야짜라나삼빠나’¹⁷⁰⁾라고도 불리는데, 밝은 지혜¹⁷¹⁾와 실천¹⁷²⁾을 두루 갖추었음을 뜻한다. [진나라말로는 명행구족이라 한다].¹⁷³⁾ 왜 그렇게 불리는가? 세 밝은 지혜란 전생 기억¹⁷⁴⁾, 신성한 눈¹⁷⁵⁾, 불순 타파(청정)¹⁷⁶⁾를 이른다.¹⁷⁷⁾

물음: 신통¹⁷⁸⁾과 밝은 지혜¹⁷⁹⁾는 어떻게 다른가?¹⁸⁰⁾

158) les dix régions, the ten directions, *daśadiś*, 十方

159) tous les univers, all the universes, *lokadhātu*, 諸世界

160) le langage, the languages, *adhivacana*, 名號

161) les six destinées, the six destinies(*gatī*), 六道

162) les êtres, the beings, *sattva*, 衆生

163) l’histoire des existences antérieures, the history of previous lives, *pūrvajamanidāna*, 先世因緣

164) les générations futures, future generations, *anāgatajanma*, 未來世

165) le lieu de leur naissance, their birthplaces, *utpādashāna*, 生處

166) les caractères de pensée, the natures of the mind, *cittalakṣaṇa*, 心相

167) leurs entraves, their fetters, *saṃyojana*, 結

168) leurs racines de bien, their roots of good, *kuśalamūla*, 善根

169) leurs issues, their outcome, *niḥsaraṇa*, 出要

170) *Pi tch’e tchö lo na san pa na*, 鞞修遮羅那三般那

171) les sciences, the knowledges, *vidya*, 明

172) les pratiques, the practices, *carāṇa*, 行

Visuddhimagga, p. 202: *Vijjāhi pana caraṇena ca sampannattā vijjācaraṇasampanno*. TTr. 지혜와 실천 수행이 완벽하므로 위자짜라나삼빠노이다. 삼명에 관해서는 『阿蘭若怖駭經 (Bhayabheravasutta)』(Majjhima, I, p. 22) 참조. 여덟 지혜(明知)에 관해서는 *Ambaṭṭhasutta*(*Dīgha*, I, p. 100) 참조. — 복합 명행(*dvandva vijjācaraṇa*)에 관해서는 *Dīgha*, III, p. 97, 98, 237; *Samyutta*, I, p. 153, 166; II, p. 284; V, p. 197; *Āṅguttara*, II, p. 163; IV, p. 238; V, p. 237; *Suttanipāta*, v. 163, 289, 442 참조.

173) LMppś에 누락된 구절. 한역본에는 ‘秦言明行具足’ 기재.

174) le souvenir des anciennes existences, the memory of former existences, *pūrvanivāsānusmṛti*, 宿命

175) l’œil divin, the divine eye, *divyacakṣus*, 天眼

176) la destruction des impuretés, the destruction of the impurities, *āsravakṣya*, 漏盡

177) 깨달음 직전 사흘에 걸쳐 이룬 세 밝은 지혜: *Dīgha*, III, p. 220, 275; *Majjhima*, I, p. 22, 248; *Āṅguttara*, V, p. 211. *Kośa*, VII, p. 108은 이렇게 정의한다: *aśaikṣī pūrvanivāsajñānasākṣātkriyāvidyā*. *aśaikṣī cyutyupapādañānasākṣātkriyāvidyā*, *aśaikṣī āsravakṣayajñānasākṣātkriyāvidyā*. (“從本來，亦往生，漏(←爾)無所應除”(安世高訳) in 法藏部 『長阿含經·十上經』に見える説一切有部の“侵食”，國際シンポジウム報告書 2014, 東アジア仏教写本研究)

178) le supersavoir, the superknowledges, *abhijñā*, 神通

179) les sciences, the knowledges, *vidyā*, 明

180) *Kośa*, VII, p. 108에 따르면, 예를 들어 *Dīgha*, III, p. 281 같은 위의 경전들이 인용하는 육신통(六神通, six *abhijñās*) 가운데 마지막 세 가지는 전생 기억, 신성한 눈, 불순 타파이다.

답: 오래된 과거의 존재들¹⁸¹⁾을 바로 아는 것은 신통이요, 이 과거의 행위들¹⁸²⁾을 바로 아는 것이 밝은 지혜이다. 신통은 여기 죽어 저기 다시 태어날 것을 아는 것이며, 밝은 지혜는 이 죽음과 탄생들을 통해 그 원인¹⁸³⁾이 되는 행위들¹⁸⁴⁾의 확실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신통은 번뇌를 여의었음을 잘 알지만, 다시 태어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일단 불순한 것들을 여의면¹⁸⁵⁾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을 아는 것을 밝은 지혜라 한다. 이 세 가지 밝은 지혜는 붓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위대한 아르하트와 프라트예까붓다들이 얻은 것이기도 하다.

물음: 그렇다면 프라트예까붓다와 붓다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답: 이들이 비록 밝은 지혜를 깨우쳤다 해도 완벽하지는¹⁸⁶⁾ 않다. 붓다의 지혜는 완벽하므로 이것이 다른 점이다.

물음: 완벽하지 않은 지혜¹⁸⁷⁾란 무엇이며 또 완벽한 지혜¹⁸⁸⁾란 무엇인가?

답: 아르하트와 프라트예까붓다는 모두 자신들의 과거 존재에 관한 지혜¹⁸⁹⁾를 통해 자신을 알고 또 남을 알지만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다. 어떤 아르하트들은 한 세상, 두 세상, 혹은 세 세상을, 십 겁, 백 겁, 천 겁, 만 겁 나아가 팔만 겁을 기억하지만 이를 벗어나면 기억은 멈추고 그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여 이들의 신성한 눈의 지혜¹⁹⁰⁾는 완벽하지 않다. 이들의 [미래세에 관한] 지혜¹⁹¹⁾ 역시 그렇다. 반면 붓다는 일순간에¹⁹²⁾ 담겨 있는, 생겨나¹⁹³⁾ 머물고¹⁹⁴⁾ 소멸하는¹⁹⁵⁾ 때를 알고 있으며, 또한 장애들이 이렇게 생겨나 머물고 소멸하는 때를 알고 있다. 붓다는 고통에 관한 종교적 인가¹⁹⁶⁾ 단계와 고통에 관한 종교적 지혜¹⁹⁷⁾ 단계 동안 어떠한 장애 번뇌가 끊기는지 모든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¹⁹⁸⁾, 그 영역에서 조건적 법¹⁹⁹⁾ 해탈을 얻으며, 다른 영역에서는 무조건적 법²⁰⁰⁾ 해탈을 얻

181) les anciennes existences passées, the previous past existences, *atītapūrvajanma*, 過去宿命事

182) les actes passés, the past actions, *atītakarman*, 過去因緣行業

183) la cause, the cause, 因

184) les actions, the actions, *carita*, 行, *hetupratyaya*, 因緣

185) les impuretés détruites, the impurities destroyed, *ārsavakṣaya*, 漏盡

186) complète, complete, *paripūrṇa*, 滿足

187) la science incomplète, the incomplete knowledge, *aparipūrṇā vidyā*, 不滿(한역 *vidyā* 생략)

188) la science complète, the complete knowledge, *paripūrṇā vidyā*, 滿(한역에는 *vidyā* 생략)

189) leur savoir des anciennes existences, their knowledge of previous existences, *pūrvanivāsānusr̥tijñāna*, 宿命智

190) la science de l'œil divin, the complete knowledge of the divine eye, *divyacakṣurdīdyā*, 天眼明

191) [Leur science] des générations futures, [Their knowledge] of future generations, *anāgatajanma*, 未來世(한역에는 *vidyā* 생략됨)

192) un seul moment, a single moment, *ekakṣaṇa*, 一念

193) la naissance, the arising, *utpāda*, 生

194) la durée, the duration, *sthiti*, 住

195) la destruction, the cessation, *bhaṅga*, 滅

196) l'adhésion religieuse relative à la douleur, the patient acceptance of suffering, *duḥkhe dharmakṣāntiḥ*, 苦法認

197) le savoir religieux relatif à la douleur, the patient acceptance of the cognition of suffering, *duḥkhe dharmajñānam*, 苦法智

198) en se libérant des entraves, by freeing oneself from the fetters, *saṃyojanavimosanāt*, 結使解脫

199) les Dharma conditionnés, the conditioned dharmas, *saṃskṛtadharmā*, 有爲法

200) les Dharma inconditionnés, the unconditioned dharmas, *asaṃskṛtadharmā*, 無爲法

고 나아가 도에 유사한 인가²⁰¹⁾ 및 견도²⁰²⁾의 십오심²⁰³⁾까지 얻는다.²⁰⁴⁾ 이 모든 것을 스라바
까와 프라트예까붓다들은 알 수 없는바 그들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붓다
는 과거 존재²⁰⁵⁾의 인연²⁰⁶⁾을 알고, 이렇게 붓다는 미래와 현재도 알고 있어 “밝은 지혜와 실
천을 갖춘 자”라 불린다.

실천²⁰⁷⁾은 몸 행위와 목소리 행위들²⁰⁸⁾을 의미한다. 오직 붓다의 몸 행위와 목소리 행위들만
이 완벽하고,²⁰⁹⁾ 나머지 모두는 결점을 지니기에²¹⁰⁾ 그를 위드야짜라나삼빠나라 한다.

수가따 SUGATA²¹¹⁾

그는 [진나라 말로] ‘수가따’²¹²⁾라고도 불린다. ‘수su’는 ‘잘(好)’, ‘가타gata’는 ‘갔다’²¹³⁾ 혹은
‘말하는(√gad)’²¹⁴⁾이니 ‘제대로 간’ 혹은 ‘말 잘하는’을 뜻한다.

201) l'adhésion semblable au Chemin, the patient acceptance similar to the Path, mārḡopamakṣānti, 道比忍

202) le chemin de la vision des vérités, the path of seeing the truths, satyadarśanamārḡa, 見諦道

203) les quinze pensées du chemin, the fifteen mind-moments, 十五心

204) 엄밀한 의미의 도는 번뇌가 끊긴 도(斷道, 滅道, prahāṇamārḡa)이다. 이 도는 숭고한 네 지혜의 이해에 속하는 견도(darśansmārḡa)에서 시작하는데, 각 진리에 해당하는 네 사유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해는 각 진리에 해당하는 네 진리로 이루어진 열여섯 진리를 품는다. 고통의 진리(苦諦, duḥkhasatya)의 이해를 예로 들자. 우선 성인은 고통의 법인(苦法忍, duḥkhe dharmakṣānti)이라 불리는 ‘인내’에 의거하여 육계의 고통의 진리를 취한다. 두 번째로는 고통의 법에 관한 지혜(苦法智, duḥkhe dharmajñāna)라는 지혜에 의거하여 이 동일한 진리를 증득한다. 같은 사실에 의거하여 번뇌에 의해 규정되는 범주의 소유(prāpti)를 끊고, 번뇌의 소멸을 취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순간 그는 새로운 인내와 새로운 지혜로서 색계와 무색계 고통의 진리를 얻고 취한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이에 속한 번뇌의 범주를 몰아낸다. 이어서 네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행이 다른 세 가지 진리를 위해 반복된다. 여덟 번의 ‘인내’ 수행, 여덟 번의 지혜 수행 즉 총 열여섯 번의 순간을 맞는 것이다. 열여섯 번째 순간, 성인은 ‘흐름에 들어가는 결실’(豫流果, le fruit d'entrée dans le courant, the fruit of entry into 'the stream, srotaāpatti')을 얻는다. 확실하게 해탈에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니르바나에 이르기 이전, 명상의 길(修道, bhāvanamārḡa)을 거쳐 아직 견도로서는 근절시키지 못한 번뇌를 타파하는 일이 남아 있다. — 상세한 사항은 *Note sommaire sur le Chemin, Kosa, V, p. IV~XI; Notes sur le chemin du Nirvana, Bull. de la Cl. des Lettres de l'Ac. Roy. de Belgique, 1924, p. 282~296; 1925, p. 15~34; Morale, p. 93~117.*

205) les êtres passés, the past beings, atītasattva, 過去衆生 āsṛvakṣaya

206) l'histoire, the history, nidāna, 因緣

207) les pratiques, the practices, caraṇa, 行

208) les actes corporels et vocaux, the physical and vocal, kāyavākhharman, 身口業

Visuddhimagga, p. 202의 행(caraṇa)의 의미: 계행(sīlasamvara), 감각 기관의 보호(indriyeguṭṭadvāratā), 음식 절제(bhojane mattaññutā), 깨어있음에 전념(jāgariyānuyoga), 일곱 덕성(七正法(satta saddahmā, Aṅguttara, IV, p. 3~7 참조) 및 물질 영역의 네 범열(安住于四種色界禪那, les quatre extases de la sphère matérielle, the four dhyānas of the material realm, cattāri rūpāvacarajhānāni).

209) parfaits, perfect, saṃpanna, 具足

210) k. 26, p. 247 b~c를 볼 것: 붓다의 몸 행위와 목소리 행위들에 지혜가 선행하며 지혜에 일치한다 (sarvakāyavāgmanaskarma jñānapūrvaṃgama jñānānuparivartī). 이것이 붓다가 독점한 열여덟 특성(十八不共佛法, āveṇika buddhadharma) 가운데 하나이다.

211) *Visuddhimagga, p. 203의 네 가지 설명: Sobhanagamanattā sundaram ṭhānaṃ gatattā sammāgatattā sammā ca gadattā Sugato* “그는 수가따이다. 도가 고결하여, 선한 곳으로 가고, 행보가 바르고, 바르게 말하기(gad) 때문이다.”

212) *Sieou k'ie t'o, sugata, 善逝*

213) allé, to go, 去

214) parlant, speaking, gad, 說

I. '제대로 간' 붓다는 온갖 깊은 사마디²¹⁵)와 무수한 큰 지혜²¹⁶)를 건넜으니 계승에 이르길,

붓다의 일체지²¹⁷)는 큰 수레를 이루고
팔정도 행하여 니르바나에 들었네.

이렇게 해서 그는 '제대로 간 자'라 불린다.

2. 그는 수가따, '말 잘하는 자²¹⁸)'. 모든 존재의 진정한 특성²¹⁹)에 의해 설하면서 존재에 집착하지 않는다.²²⁰) 제자들의 지혜 수준²²¹)을 살피면서, 이들을 바르게 이끌기²²²) 위해 붓다는 제도에 따르는 모든 방편과 신통지의 위력을 이용한다. 누가 제도 받을지, 누가 아프고 약한지, 제도 받을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시, 계율, 니르바나를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 좋을지, 누구에게 다섯 구성요소, 열두 원인²²³) 혹은 네 진실 등의 체계를 설하고 그를 도로 이끌 만한 자 붓다만 한 이가 없다. 이러한 각각의 모습 속에 붓다는 제자의 지혜 수준²²⁴)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설법하는 것이니, 이러한 연유로 붓다는 '말 잘하는 자'라고 부른다.

로까위드 LOKAVID²²⁵)

또한 '로까위드'²²⁶)라고도 불린다. '로까'는 [진나라 말로] '세상²²⁷)'이요, '비드'는 '알다'²²⁸)이다. 따라서 이 표현은 '세상을 아는 자'²²⁹)를 뜻한다.

물음: 어떻게 세상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답: 그는 두 부류의 세상을 알고 있다. 하나는 존재 세간²³⁰)이요, 둘은 진정한 특성²³¹)에 의한 비존재 세간²³²)이다. 붓다는 세간을 알고, 그 원인²³³)을 알고, 그 소멸²³⁴)을 알고, 세간 벗어

215) toutes sortes de profondes concentrations, all kinds of deep concentration, *gambhīra samādhi*, 種種諸深三摩

216) d'innombrables grandes sagesses, numberless great wisdoms, *apramāṇā mahāprajñā*, 無量諸大智慧

217) l'omniscience, the omniscience, *sarvajñāna*, 一切智

218) bien parlant, well-spoken, *satyalakṣaṇa*, 好說者

219) le Vrai caractère, the true nature, *satyalakṣaṇa*, 實相

220) without being attached, *abhiniveśa*, 不著

221) le degré de sagesse, the degree of wisdom, *prajñābala*, 智慧力

222) convertir, convert, *parināma*, 正使

223) les Douze causes, the twelve causes, *dvādaśahetupratyaya*, 十二因緣

224) le degré du savoir, the extent of knowledge, *jinābala*, 智力

225) *Visuddhimagga*, p. 204: *Sabbathā pi viditalokattā pana Lokavidū*. 붓다는 형성 세상(le monde des formations, the world of the formations, *sankhāraloka*, 行世間), 존재 세상(le monde des êtres, the world of beings, *Sattaloka*, 衆生世間), 공간 세상(le monde de l'espace, the world of space, *okāsaloka*, 器世間)과 그 하위 세상들 모두를 알고 있다.

226) *Lou kia pai*, lokavid, 路迦憊

227) le monde, the world, 世

228) connaître, know, 知

229) Connaisseur du monde, Knower of the world, 知世間

230) le monde animé, the animate world, *sattvaloka*, 衆生[世間]

231) leur vrai caractère, their true nature, *satyalakṣaṇa*, 如實相

232) le monde inanimé, the inanimate world, *asattvaloka*, 非衆生[世間]

233) sa cause, its cause(hetu), 世間因

234) sa destruction, its destruction, *nirodha*, 世間滅

나는 길²³⁵)을 알고 있다.

2. 또한 세간에 대한 그의 지혜를 세속적 지혜²³⁶)와 외도의 지혜²³⁷)에 견줄 수 없다. 붓다는 세간이 사라져가는²³⁸) 것이기에 괴로운²³⁹) 것임을 알고, 괴로운 까닭에 본질이 없음²⁴⁰)을 알고 있다.

3. 또한 마지막으로 그는 그 특성상 세간은 영원한 것도²⁴¹) 영원치 않은 것²⁴²)도 아니며, 끝 있는 것도²⁴³) 끝없는 것도²⁴⁴) 아니며, 움직이는 것도²⁴⁵) 움직이지 않는 것도²⁴⁶) 아님을 알고 있다. 붓다는 이러한 특성에 집착하지²⁴⁷) 않는다. 맑고,²⁴⁸) 늘 그러하고,²⁴⁹) 스러지지 않아²⁵⁰) [세간은] 허공²⁵¹)과 같다. 이러한 까닭에 붓다는 로까위드라 불린다.

아누따라 ANNUTARA²⁵²)

또한 ‘아누따라’²⁵³)로 불리기도 하는데, 진나라 말로 더 빼어날 수 없음을 뜻한다. 어찌하여 더 빼어날 수 없는가?

1. 니르바나 다르마는 최상의 다르마이다. 붓다 스스로 이 니르바나를 깨달았으며 남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또 붓다는 장차 존재를 니르바나로 이끈다. 삼라만상 가운데 니르바나가 으뜸이듯이 존재 가운데 붓다가 으뜸이다.

2. 또한 도덕,²⁵⁴) 사마디,²⁵⁵) 지혜,²⁵⁶) 존재를 개심²⁵⁷)하는 데 붓다에 이를 만한 이가 없으니 더욱 그를 능가할 사람 없다. 이런 연유로 붓다는 아누따라라고 불린다.

3. 또한 ‘아는 부정,²⁵⁸) ‘우타라’는 논박²⁵⁹)을 뜻한다. 외도²⁶⁰)의 모든 체계는 논박되고 타파 될 수 있다. 외도의 법은 진실하지 않고²⁶¹) 말지도 않기²⁶²) 때문이다. 하지만 붓다의 법을 논

235) le chemin supramondain, the supraworldly Path, *lokottramārga*, 出世間道

236) un savoir vulgaire, conventional knowledge, *saṃvṛtijiña*, 世俗知

237) un savoir hérétique, heretical knowledge, *tīrthikajñāna*, 外道知

238) transitoire, transitory, *anitya*, 無常

239) douloureux, suffering, *duḥkha*, 苦

240) non-substantiel, non-substantial, *anātmaka*, 無我

241) éternel, eternal, *śāśvata*, 有常

242) non-éternel, non-eternal, *aśāśvata*, 無常

243) fini, finite, *antavat*, 有邊

244) infini, infinite, *ananta*, 無邊

245) mobile, changing, *cyuta*, 去

246) immobile, *acyuta*, 不去

247) ne s'attacher pas, not attached, *abhinivīśate*, 不著

248) Pur, Pure, *viśudhha*, 清淨

249) éternel, eternal, *nitya*, 常

250) inaltérable, unalterable, *abhinivīśate*, 不壞。

251) l'espace, the space, *ākāśasama*, 虛空

252) *Visuddhimagga*, p. 207: *Attanā pana guṇehi viṣiṭṭhatarassa kassaci abhāvato natthi etassa uttara ti Anuttaro* “이보다 빼어난 공덕을 지닌 자 없고, 그를 능가할 자 아무도 없다네.”

253) *A neon to lo*, 阿耨多羅

254) la moralité, the discipline, *śīla*, 持戒

255) la concentration, *samādhi*, 禪定

256) la sagesse, the wisdom, *prajñā*, 般若

257) la conversion des êtres, *sattvapariṇṇama*, 教化衆生

258) la négation, the negation, *A*, 無

259) la réfutation, the refutation, *uttara*, 答

260) les hérétiques, the heretics, *tīrthika*, 外道

박하거나 타파할 수 없다. 일체 논쟁에서 벗어나,²⁶³⁾ 진실하고 청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붓다는 아누따라라고 불린다.

뿌루샤다마사라티 PURUṢADAMYASĀRĀTHI²⁶⁴⁾

또한 ‘뿌루샤다마사라티’²⁶⁵⁾라고도 불린다. ‘뿌루샤(Puruṣa)’는 [진나라 말로] ‘남자’,²⁶⁶⁾ ‘다마(damya)’는 ‘개심시킬’,²⁶⁷⁾ ‘사라티(sārathī)’는 ‘마차 행렬을 이끄는 수장’²⁶⁸⁾이니. ‘개심시킬 자들의 무리를 이끄는 수장’²⁶⁹⁾을 뜻한다.

1. 붓다는 큰 자비심,²⁷⁰⁾ 큰 연민,²⁷¹⁾ 큰 지혜²⁷²⁾를 갖추고 때로는 온화한²⁷³⁾ 말로, 때로는 냉혹한²⁷⁴⁾ 말로, 때로는 미온적인²⁷⁵⁾ 말로 행렬이²⁷⁶⁾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끈다.²⁷⁷⁾ 계송에 이르길,

붓다의 법²⁷⁸⁾은 수레요, 제자들은 말이라,

261) faux, false, *asatya*, 非實

262) impurs, impure, *avīsuḍḍa*, 非清淨

263) elle échappe à toute discussion, it escapes any discussion, *sarvavivādasamatikrānta*, 出一切語言道

264) *Visuddhimagga*, p. 207: *Purisadamme sāreti ti Purisadanimasārathi. Dameti, vineti ti vuttam hoti. Tattha purisadammaṃ ti adantā dametum yuttā tiracchānapurisā pi manussapurisā pi pi amanussapurisā pi*. TTr. 그는 사람이 길들도록 인도한다. 그리하여 그는 길들일 사람들의 지도자이니라. 이 점에서, 길들지 않았으나 길들이기 적합한 동물 수컷들 그리고 인간 남자들 그리고 인간 아닌 수컷들은 ‘길들일 남성들’이다.

이 설명에 의하면 붓다가 교화한 ‘*puruṣa*’는 동물(*tiracchāna*)이건, 인간(*manussa*)이건, 비인간(*Amanussa*)이건 남성 존재들이다. *Visuddhimagga*가 동물 교화의 예들을 제공한다: *Apālāla*(*Dīvyāvadāna*, p. 348, 385; *Samanatapāsādikā*, IV, p. 742; *Mahāvamsa*, XXX, v. 84; *Hīvan-tsang*, tr. Beal, I, p. 122; *Fa hien*, tr. Legge, p. 29). *Cūlodara et Mahodara*(*Mahāvamsa*, I, v. 45 seq; *Samanatapāsādikā*, I, p. 120); *Aggisikha et Dhūmasikha*(*Samanatapāsādikā*, I, p. 120); *Āravāla*(*Mahāvamsa*, XII, v. 9~20; *Samanatapāsādikā*, I, p. 65); *Dhanapālaka*(유명한 코끼리 *Nālāgirī*). — *Conversions d’amanuṣyas*, p. ex., *Ālavaka*(*Sarathā*, I, p. 317; *Suttanipāta* 주석 I, p. 217~240); *Sūciloma et Kharaloma*(*Samyutta*, I, p. 207 seq; *Suttanipāta*, II, 5), *Sakka*(*Dīgha*, II, p. 263 sq.).

이하 Mppś는 ‘*puruṣa*’라는 어휘의 확장된 의미를 제시하는데, 남성뿐 아니라 남자, 여자, 양성구유(hermaphrodite)도 포함한다.

265) *Fou leou cha t’an miao so lo t’i*, 富樓沙曇藐婆羅堤

266) un homme, a man, 丈夫

267) à convertir, to be converted, 可化

268) le chef de caravane, the leader of a caravan, 調御師

269) Chef de la caravane des hommes à convertir, Leader of the caravan of men to be converted, 可化丈夫調御師

270) sa grande bienveillance, his great loving kindness, *mahāmaṭṭri*, 大慈

271) sa grande pitié, his great compassion, *mahākaruṇā*, 大悲

272) son grand savoir, his great wisdom, *mahājñāna*, 大智

273) douce, sweet, *śakṣṇa*, 軟美

274) rude, harsh, *paruṣa*, 苦切

275) mitigée, lukewarm, *śakṣṇaparūṣa*, 雜

276) la caravane, the caravan, *sārthā*, 調御

277) *Anguttara*의 *Kesīsutta*, II, p. 112 비유(*Tsa a han*, T 99, no. 923, k. 33, p. 234 b~c) 참조: *Ahaṃ kho Kesi purisadammaṃ saṅghena pi vinemi pharusena pi vinemi saṅghaparūṣena pi vinemi*. TTr. 깨시여, 나도 사람을 길들일 때 부드럽게 길들이기도 하고 냉혹하게 길들이기도 하고 부드럽음과 냉혹함 둘 모두로 길들이기도 한다.

진정한 다르마²⁷⁹)는 재화,²⁸⁰ 붓다는 지도자²⁸¹)라네.
말들이 길을 벗어나 궤도를 이탈하면,
붓다가 이들을 바로잡아 길들이오.

만약 법 질서²⁸²) 무시 않는 이들이라면,
붓다가 이들을 교묘히 바른길²⁸³)로 되돌리리.
하지만 바로잡을 수 없는 지경이라면 포기하리.
이런 연유로 붓다는 최상의 지도자라네.

2. 또한 다섯 부류의 지도자가 있다. 1) 부모의 법, 형제의 법, 자매의 법, 친족의 법, 마을의 법 2) 부락 촌장의 법²⁸⁴) 3) 관료의 법²⁸⁵)이 있다. 이 세 법이 현세를 지배한다. 4) 후세는 야마²⁸⁶) 왕이 지배하며 5) 붓다는 현세의 즐거움²⁸⁷)과 후세의 즐거움²⁸⁸)과 니르바나의 즐거움²⁸⁹)으로 [존재의] 행복²⁹⁰)을 책임지므로 최상의 스승이다. 사람들은 오래지 않아 [첫] 네 법을 어기고 마는데, 영원히 이 법을 지킬 도리가 없어서이다. 붓다는 세 길²⁹¹)로 사람을 다스린다.²⁹²) 붓다는 절대 이 길을 놓치지 않는다. 마치 불²⁹³)의 고유한 특성²⁹⁴)이 불이 꺼질²⁹⁵) 때까지 불을 떠나지 않듯, 붓다는 사람들에게 선한 법²⁹⁶)을 베풀고 죽을 때까지 이들과 함께 하며 방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유에서 붓다는 뿌루샤다마사라티라 불린다.

물음: 붓다는 여성들²⁹⁷)도 교화²⁹⁸)하여 길을 얻게 하였는데 [뿌루샤다마사라티]라는 수식어에 서는] 유독 남자들이 관건인가?

답: 1. 남자는 존귀하나 여자는 비루하기²⁹⁹) 때문이다. 여자가 남자를 따르기 때문이며, [오직] 남자만이 자신의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2. 또한 여인들은 그들이 지닌 다섯 장애³⁰⁰) 때문에, 전륜성왕,³⁰¹) 석천왕,³⁰²) 마천왕,³⁰³) 브

278) la loi du Buddha, the doctrine of the Buddha, 佛法

279) les vrais Dharma, the true dharmas, 實法

280) la marchandise, the merchandise, 寶

281) le conducteur, the leader, 調御

282) ses ordres, his orders, 法治

283) le bon chemin, the narrow path, 上道

284) la loi du chef de village, the law of the village head, 官法

285) la loi du mandarin, the law of the mandarin, 師法

286) le roi *Yen lo*, King *Yen lo*, Yama, 閻羅王

287) les félicités présentes, the present happiness, *ihatrasukha*, 今世樂

288) les félicités futures, the future happiness, *paratrasukha*, 後世樂

289) le bonheur du Nirvana, the happiness of nirvāna, nirvānasukha, 涅槃樂

290) le bonheur [des êtres] the well-being(hita) [of beings], 利益

291) le triple Chemin, the threefold Path, *mārgatraya*, 三種道

292) gouverne, governs, *tche*, 成

293) le feu, the fire, *tejas-*, 火

294) le caractère propre, the self-nature, *svalakṣaṇa*, 自相

295) son extinction, extinguished, *nirodha*, 死

296) les bons Dharma, the good dharmas, *kuśaladharma*, 善法

297) les femmes, women, *strī*, 女人

298) convertit, converts, *vinayati*, 化

299) vile, lowly, 卑

300) empêchements, hindrances, *āvaraṇa*, 礙

301) Cakravartin, 轉輪王

라흐마데와라자³⁰⁴)가 될 수 없다.³⁰⁵ 이러한 연유로 여기서는 여인들을 언급하지 않는다.

3. 마지막으로 만약 붓다가 여인들³⁰⁶)을 이끄는 수장이라면 존중할 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행렬을 이끄는 수장이라 함은] 일체 [인간] 계층 부류를 포함한다. 왕이 행차한다고 [말하면] 으레 홀로 오지 않고 수행원³⁰⁷)이 따라오을 [알고 있다].³⁰⁸ 마찬가지로 남자³⁰⁹)라 함은 [정신적으로] 남녀추니,³¹⁰ 고자,³¹¹ 여인들³¹²)을 포함시킨다. 남자라 이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까닭에 붓다는 푸루사다마사라티라 불린다.

샤스파 데와마우사남 ŚĀSTĀ DEVAMAUṢYĀṆĀM³¹³)

또한 샤스파 데와마우사남³¹⁴)이라고도 불린다. ‘샤스파’는 [진나라 말로] 스승³¹⁵), ‘데와’는 신들, ‘마우사남’은 인간(속격³¹⁶)을 이르니, 이 이름은 곧 ‘신과 인간의 스승’³¹⁷)을 뜻한다. 붓다

302) Śakra devarāja, 釋天王

303) Māra devarāja, 魔天王

304) Brama dévrāja, 梵天王

305) 출전은 *Majjhima*, III, p. 65~66(*Tchong a han*, T 26, k. 47, p. 723; *Aṅguttara*, I, p. 28; *Vibhaṅga*, p. 336에는 누락); *Nettipakarana*, P. 93: “여인은 현재도 미래도 완전히 깨달은 성인(Arhat) 즉 붓다, 전륜왕, 석천왕, 마천왕, 범천왕이 될 수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aṭṭhānam etaṃ anavakāso yaṃ itthi Arakaṃ assa sammāsambuddho, rājā assa cakkavattī, Sakkattaṃ kareyya, Mārattaṃ kareyya, Brahmattaṃ kareyya n’etaṃ thānaṃ vijjati*). 따라서 여성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다섯 있다. 붓다, 전륜왕, 석천왕, 마천왕, 범천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Saddharmapuṇḍarīka, p. 264는 이 규율을 유지하면서도 문구를 약간 수정한다: *Pañca sthānāni sūtry adyāpi na prāpnoti. Katamāni pañca? Prathamam Brahmasthānam dvitīyam Śakrasthānam tṛtīyam Mahārājasthānam caturtham Cakravartistkānam pañcamam avāivartikabodhisattvasthānam*. TTr. 여인은 현재에도 다섯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섯이란 무엇인가? 제일은 범천왕 지위, 제이는 인드라 지위, 제삼은 사천왕 지위, 제사는 전륜성왕, 제오는 불퇴전보살 지위이다. 그런데도 규범에 예외를 두고 있다: p. 263 인정 사항. 뱀의 왕 사가라(Sāgara)의 딸은 완전함에 이른 붓다 경지에 이를 수 있다(*sā samyaksambodhim abhisambodhim samarthā*).

다음에 비유의 대상이 될 사가라의 딸 경우를 인지한 Mppś는 이 경전 규범의 표현을 유지하기 불가능함을 드러낸다. 훌륭한 주석서로서 Mppś의 경우 그 글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내용을 삭제하는 타협의 수단을 취한다: 여인이 다섯 장애에 부딪히는 것은 인정하되 이 가운데 네 가지만 나열한 것이다: 여인은 전륜왕, 석천왕, 마천왕, 범천왕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간격은 의도적이어서 단순한 누락으로 설명될 수 없다. 좀 더 뒤(k. 9, p. 125 a 6)에서는 여인은 전륜왕, 석천왕, 마천왕, 브라흐마데와라자가 될 수 없다면서도 붓다가 될 수 없다는 언급을 조심스럽게 삼가기 때문이다.

306) les femmes, the women, *strīsārathi*, 女人

307) une suite, his retinue, *parivāra*, 侍從

308) *Atthasālinī*, p. 67의 동일한 비유: *Yathā rājā āgato ti vutte na parisam pahāya ekako va āgato rājā parisāya pana saddhīm yeva āgato ti paññāyati*.

309) les hommes, the men, *puruṣa*, 丈夫

310) les hermaphrodites, the hermaphrodites, *ubhayavyañjanaka*, 二根

311) les êtres asexués, the asexual beings, *avyañjanaka*, 無根

312) les femmes, the women, *strī*, 女

313) *Visuddhimagga*, p. 208 참조: *Diṭṭhadhammikasamparāvīkaparamatthehi yathārahaṃ anusāsati ti Satthā...Devamanussānan ti devānañ ca manussānañ ca, ukkaṭṭhaparicchedavasena bhābbapuggalaparicchedavasena c’etaṃ vuttaṃ*. TTr. 현세와 내세의 궁극적 의미로 적절하게 가르치시기에 스승이다...합성이 ‘신과 인간들의’는 신들의 그리고 인간들의’를 의미한다...이는 수승한 자들과 유능한 자들을 한정하여 말한 것이다.

314) *Chō to t’i p’o ma neou chō nan*, 舍多提婆魔菟舍喃

315) le maître, the teacher, 教師

는 왜 '신과 인간의 스승'이라 불리는가? 붓다는 신과 인간에게 해야 할 것³¹⁸과 삼가할 것,³¹⁹ 선한 것³²⁰과 선하지 않은 것³²¹을 보이고 인도한다. 이 법칙을 따르는 자는 '도'의 법칙을 버리지 않아 그 보답³²²으로 번뇌 해탈³²³을 얻으리라. 따라서 붓다는 '신과 인간의 스승'이라 불린다.

물음: 1. 붓다는 [신과 인간을 구할 뿐 아니라] 나가,³²⁴ 귀신³²⁵ 같은 다른 운명의 길³²⁶에 떨어진 존재들도 구한다.³²⁷ 그런데 어찌해서 유독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라 하는가?

답: 다른 길에 떨어진 존재를 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신과 인간 가운데 태어나는 존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단지 신과 인간을 제도한다고 하는 것이다.] 마치 흰 피부를 지닌 사람이 검은 반점을 지녔다고 해서 흑인이라 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 검은 점이 큰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2. 또한 인간³²⁸의 경우 속박³²⁹이 얇아 집착³³⁰ 끊기가 쉽고, 천인들의 경우 그 지혜가 날카로운³³¹ 까닭에 이 두 단계에서 도를 얻기가 쉬우며, 다른 길에서는 이와 같지 않다.

3. 또한 신이라 함은 하늘³³²의 모든 존재를 포함하며, 인간이라 함이 지상³³³ 존재들을 포함한다는 것은, 하늘에는 천인들이 기본³³⁴이고, 땅에서는 인간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이라 함은 하늘의 존재 모두, 인간이라 함의 땅의 모든 존재 모두를 아우른다.

4. 또한 인간은 도덕 원칙,³³⁵ 진실 보는 길,³³⁶ 명상의 길³³⁷과 [모든] 길의 결실³³⁸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길에서는 이들을 얻을 수 없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길에서는 이들을 얻어도 많이 얻기는 힘들다고 한다. 반면 신과 인간은 이들을 얻기 쉽고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붓다는 신과 인간의 스승이라 한다.

316) au génitif, in the genitive case

317) Maître des dieux et des hommes, Teacher of gods and men, 天人教師

318) ce qu'il faut faire, what should be done, 應作

319) ce qu'il faut ne pas faire, what should not be done, 不應作

320) ce qui est bon et mauvais, what is good, *kuśala*, 善

321) ce qui est mauvais, what is bad, *akuśala*, 不善

322) la récompense, the reward, *vipāka*, 報

323) la délivrance de leurs passions, the liberation from their passions, *kleśavimokṣa*, 煩惱解脫

324) les Nāga, the *nāgas*, 龍

325) les Asura, the *asuras*, 龍鬼

326) d'autres destinées, other destinies, 餘道

327) 위의 p. 133, n. 1, 동물들과 비인간 존재들에게 일어난 전향을 볼 것. *Visuddhimagga*, p. 208~209는 감빠에서 붓다의 설법을 듣던 개구리 만다까(Maṇḍaka) 이야기를 전한다. 당시 소치는 사람이 지팡이로 개구리를 누르고 그 머리를 으깨자 개구리는 도리천에 환생했다. (cf. *Vimānavatthu*, V, 1: *Vimāna Comm.*, p. 216 sq.; *Milinda*, p. 350; *Samantapāsādikā*, I, p. 121).

328) les hommes, the men, *manuṣya*, 人

329) les entraves, the fetters, *saṃyojana*, 結使

330) le détachement, the detachment, *nirvedacitta*, 厭心

331) aiguë, sharp, *tikṣṇa*, 利

332) du ciel, heavenly, *varga*, 天

333) la terre, the earth, *pṛthivī*, 地上

334) principaux, principal, *abhimātra*, 大

335) la discipline morale, the moral discipline, *śīlasaṃvara*, 戒律儀

336) le chemin de la vision des vérités, the path of seeing the truths, *satyadarśanamārga*, 見諦道

337) le chemin de la méditation, the path of meditation, *bhāvanāmārga*, 思惟道

338) les fruits du chemin, the fruits of the path, *mārgaphala*, 道果

5. 마지막으로 인간들은 행복의 원인³³⁹⁾을 많이 짓고, 천인들은 행복의 보상³⁴⁰⁾을 많이 받는다. 행복의 원인은 선한 법칙들³⁴¹⁾이요, 행복³⁴²⁾은 선한 법칙들의 보상³⁴³⁾이다. 다른 길에서는 행복의 원인도 행복의 보상도 드물다. 이러한 이유로 붓다를 천인과 인간의 스승이라 한다.

붓다 BUDDHA³⁴⁴⁾

또한 붓다³⁴⁵⁾라 불리니, [진나라 말로는] 지자³⁴⁶⁾라 한다. 그는 어떤 법을 알고 있는가? 과거³⁴⁷⁾·미래³⁴⁸⁾·현재³⁴⁹⁾의 존재, 생명 있는 존재와 생명 없는 존재,³⁵⁰⁾ 늘 그러한 존재와 무상한 존재³⁵¹⁾ 등 모든 존재를 알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붓다라 불린다.

물음: 다른 사람들도 일체 제법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마헤샤바라³⁵²⁾(진나라 말로 위대한 신)는 여덟 팔,³⁵³⁾ 세 눈³⁵⁴⁾을 지녔으며 흰 소³⁵⁵⁾ 난디(Nandi)를 탄다. 또 비슈누³⁵⁶⁾(진나라 말로는 '널리 두루 들음'³⁵⁷⁾)는 네 팔³⁵⁸⁾로 소라고둥³⁵⁹⁾을 들고 원반³⁶⁰⁾을 차고, 황금 날개 새³⁶¹⁾를 타고 다닌다. 또한 꾸마라³⁶²⁾[진나라말로 동자³⁶³⁾]는 닭,³⁶⁴⁾ 요령,³⁶⁵⁾ 붉은 깃발³⁶⁶⁾을

339) les causes du bonheur, the causes of happiness, *sukhahetu*, 樂因

340) la rétribution bienheureuse the fortunate reward, *sukhavipāka*, 樂報

341) les bons Dharma, the good dharmas, kuśaladharmā, 善法

342) le bonheur, the happiness, *sukha*, 樂

343) la rétribution, the reward, *vipāka*, 報

344) *Visuddhimagga*, p. 209에 제공된 네 가지 설명 가운데 첫 설명: *Yaṃ pana kiñci ñeyyaṃ nāma. sabbass' eva buddhattā vimokkhabhaktiñāṇavasena Buddho*. TTr. 무엇인가 알아야 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모두를 번뇌가 하나도 없는 아르하트 도의 지혜로 안다. 그래서 붓다이다. *Mahāniddeśa*, p. 457~458 참조: *Paṭisambhida*, I, p. 174: *n'etaṃ nāmaṃ mātarā kataṃ...*TTr.이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 준 것이 아니다...: *vimokkhantikaṃ etaṃ Buddhānaṃ Bhagavantānaṃ bodhiyā mūle saha sabbaññutañāṇassa paṭilābhā sacchikā paññatti yadidaṃ Buddho ti*. TTr. 이것은 해탈하는 최후에, 보리수 뿌리 위에서, 여러 붓다 세존의 일체지와 더불어 얻은 진실한 이름이다. 그러므로 곧 붓다이다. — *Hobogirin*, *Butsu*, p. 191~192는 Mpp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 T 1509, k. 70, p. 552 b; *Nirvāṇasūtra*, T 375, k. 16, p. 712 b; *Kośa*, I, p. 1; *Buddhabhūmiśāstra*, T 1530, k. 1, p. 291 b; *Vibhāṣā*, T 1545, k. 143, p. 735 b; T 1851, k. 20B, p. 864 c.

345) *Fo t'o*, buddha, 佛陀

346) savant, cholar, 知者

347) passés, past, *atita*, 過去

348) futurs, future, *anāgatā*, 未來

349) present, present, *pratyutpanna*, 現在

350) animés et inanimés, animate and inanimate, *sattvāsattvasaṃkhyāda*, 衆生數非衆生數

351) permanents et impermanents, permanent and impermanent, *nityānitya*, 有常無常

352) *Mo hi cheou lo*, Maheśvara, 摩醯首羅天

353) huit bras, eight arms, *aṣṭabhujā*, 八臂

354) trois yeux, three eyes, *trineta*(tryakṣa), 三眼

355) le taureau blanc, the white bull, *vṛṣavāhana*, 騎白牛[Nandi]

356) *Wei nieou*, Viṣṇu, 毘紐天

357) Pien wen', ouïe universelle, Univeral Eye, 遍聞

358) quatre bras, four arms, *caturbhujā*, 四臂

359) une conque, a conch, *ṣaṅkha*, 貝

360) un disque, a wheel, *cakra*, 輪 騎

361) l'oiseau aux ailes d'or, a golden-winged bird, Garuḍa, 金翅鳥

362) Kieou mo lo, Kumāra, 俱摩羅天

363) 童子

364) un coq, a cock, *kukkuṭa*, 雞

들고 공작³⁶⁷)을 타고 다닌다.³⁶⁸) [이 신들은 모두 위대한 지도자³⁶⁹]이다. 이 부류의 신들은 모

365) une clochette, a bell, *ghanṭā*, 鈴

366) un étendard rouge, a red standard, *lohitapatākā*, 赤幡 騎孔雀

367) un paon, a peacock, *śikhigata*, 孔雀

368) 마헤슈와라(Maheśvara, 大自在天), 비쉬누(Viṣṇu), 구마라(Kumāra) 다시 말해 마헤슈와라(Maheśvara, 大自在天), 비쉬누(Viṣṇu), 브라흐마(Brahmā)는 브라흐만 삼위일체(Trimūrti brahmanique) 신들이다.

1° 마헤슈와라 혹은 시바(Śiva) - *Jou ta tch'eng louen*, T 1634, k. 2, p. 46 b: 제십지를 정확하게 될 때, 방편(*Upāyas*) 및 거대학 결정적인 다라니(*Dhāraṇis*)를 획득하여, 무애해(*Pratisamvids*)와 자재(*Vaśitas*)를 깨닫고, 대자재천자(Maheśvaradevaputra)가 되는데, 이는 우주 전체의 버팀목이기도 하다.

질문. - 당신이 말하는 마헤슈와라(Maheśvara, 大自在)은 세상에 알려진 마헤슈와라와 같은가 다른가?

답 - 이 정거천(*śuddhāvāsa*)의 이슈와라(Īśvara, 自在)는 세상에 [알려진] 그 이슈와라가 아니다. 당신의 이슈와라와 다른 존재이다. 당신의 이슈와라와 이름은 같거늘 동일인이 아니다. 정거천에 사는 마헤슈와라도 있지만 악한 마헤슈와라(*piśācamahēśvara*)도 있다. 마헤슈와라와 비쉬누(Viṣṇu)는 종종 함께 인용된다. 예를 들어 나가르주나의 *Madhyamakāśāstra*, T 1564, k. 1, p. 1 b; 아리아데와(*Āryadeva*)의 *Śatasāstra*, T 1569, k. 1, p. 168 a(tr. Tucci, *Pre-Dīnnāga*, p. 1); *Kośavyākhyā*, p. 7. - 그의 *Kośa* 주석, T 1821, K. 7, p. 140 a, P'ou Kouang의 루드라(Rudra) 관련 언급: 루드라는 폭력을 의미하며 마헤슈와라의 동의어이다. 선한 마헤슈와라는 총괄하여 천 개의 이름을 지닌다. 하지만 이승 즉 아래 현상 세계에서는 육십 개의 이름을 지니는데 루드라가 그 하나이다. 빠수빠따(Pasupata, T'ou houei, 獸主派-Pāṃsupata, Paśupata?)는 이슈와라가 삼계를 능가하며(*trailokyātīkrānta*) 세 몸을 지닌다고 한다: 1. 法界(Dharmadhātu)를 채우는 법신(Un corps de la loi, a body of the law, *dharmakāya*) 2. 자재천(Īśvaradevas) 궁전의 색계(*rūpadhātu*) 정상에 거하는 보신(Un corps de jouissance, a body of enjoyment, *sambhogakāya*). 불경들에는 이렇게 전한다. 마헤슈와라 신은 세 눈, 여덟 팔을 지녔으며 그 몸 높이는 육천 유순(*vojanas*)이다. 3. 여섯 운명[존재]의 형태에 자신을 맞추고, 이들을 가르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들을 교화하는 응신(Un corps apparitionnel, an apparitional body, *nirmānakāya*) - 아리아데와의 이단의 니르바나에 관한 논서(T 1640, p.157 c, tr. Tucci, *T'oung Pao*, 1925~26, p. 25 sq.): 마헤슈와라로부터 기인하는 효과가 결실, 브라흐마(Brahmā)는 원인; 하지만 마헤슈와라는 세 부분(Brahmā, Nārāyaṇa=Viṣṇu, Maheśvara)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대지(*prthivī*)가 그의 버팀목이다. 대지의 스승은 마헤슈와라이다. 삼계에 존재하는 존재와 비존재는 마헤슈와라에서 기인한다. 마헤슈와라의 몸에서 머리는 우주(*ākāśa*), 몸은 대지(*prthivī*), 소변은 물(*āpah*), 대변은 산(*parvata*)에 해당한다; 모든 존재(*sattva*)는 그의 배 속 별레이다; 그의 [생명의] 숨결은 바람(*vāyu*), 그의 체열은 불(*tejah*)이다; 죄와 공덕(*āpattipunya*)은 그의 행위이다. 이 여덟 가지가 마헤슈와라의 몸을 형성한다. 마헤슈와라 신은 생산과 파괴의 원인이다. 모든 것이 이슈와라에서 비롯하고 그에 의해 파괴된다: 고로 그는 신이라 불린다. 그런 까닭에 마헤슈와라 학파 스승들은 이슈와라 신이 만물을 만들며 그가 니르바나(Nirvāṇa)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 파르티아(Parthie) 출신 Ki tsang(549~623)은 『백론(*Śatasāstra*)』 주석(T 1827, k. 1, p. 244 a)에서 이 법칙을 수용한다: 육도 존재, 신들 및 지상의 존재들은 이슈와라 신의 몸이다. 이슈와라 신이 그의 세 몸(이슈와라의 몸, '마라야나Nārāyaṇa'의 몸, '브라흐마데와Brahmādeva'의 몸)으로 삼라만상을 보여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슈와라 신의 몸은 여덟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공은 그의 머리, 일월은 그의 눈 등등...[위의 언급처럼] - 카슈미르와 중앙 아시아에서 오래 머문 다르마락세마(Dharmarakṣema, 曇無讖)(385~433)가 번역한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Mahāparinirvāṇasūtra*)』에는 시바파(Saivism)의 기원에 관한 중요한 글이 포함되어 있다(T 374, k. 19, p. 476 b): 실제로 *Kia lo kieou t'o kia tchen yen*(Krakudha-Kātyāyana)이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다. 그는 모든 것(*sarvajñā*)을 알고, 모든 것(*savadṛś*)을 보고 삼계를 안다. 그는 한 순간 무수하고 무한한 우주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제자들(*śrāvaka*)도 그러했다. 그는 존재들이 자신의 결점을 제거할 수 있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갠지스가 내적이건 외적이건 그 모든 죄악을 정화토록 했다. 이와 같이 그는 모든 존재의 내적 죄악이건 외적 죄악이건 가릴 것 없이 모든 죄악을 정화한다. 그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의를 지도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이고도 가책(*hrī*)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악한 [운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그는 공간(*ākāśa*)과 같아 먼지나 물이 스며들 수 없다. 그런데 가책을 느끼는 이들은 지옥(*naraka*):으로 들어간다. 이들은 대지를 침수시키는 대화와 같다. 모든 존재는 이슈와라 신의 창조물이다. 이슈와라 신은 존재의 기쁨이자 행복이다. 그는 존재의 고통에 분개한다. 모든 존재의 죄악과 공덕은 이 이슈와라 신의 작용이다. 죄악과 공덕을 떠안은 것이 인간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직공이 목제 기계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이 기계는 걸고, 멈추고, 앉고, 눕는다. 그는 단지 말을 하지 못할 뿐이다. 인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슈와라는 직공 같고, 인간은 목제 인간 같다.

여덟 팔을 제외하면, Mppś에 의해 이루어진 시바 신의 묘사는 ‘Tryakṣa, Trinetra, Śaḍardhanayana(세 눈 박이 신)’[Hopkins, *Epic Mythology*, p. 219~220] 및 *Vṛṣavāhana*(황소에 올라탄)[Bhavadgīrīśa, 1, 197, 21]라는 서사적 수식어에 상응한다. 반면 전통 도상의 유형은 이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고행자는 일반적으로 네 팔을 지닌다; 위의 두 팔은 긴 북(*dhakkā*)과 사슴(*mrga*)을 들고, 반면 아래 두 팔은 보시(*varadahasta*)의 수인과 무외(*abhayahasta*)의 수인을 하고 있다. 그는 인간이 지닌 두 눈 외에도 이마에 눈을 하나 더 가졌다. 호피만 걸친 의상으로 살아 꿈틀대는 뱀을 목걸이로 둘렀다. 브라흐만식으로 틀어 올린 머리 위로 초승달, 해골 - 브라흐마(*Brahmā*)의 다섯째 머리 - 그리고 갠지스의 사이렌(R. Grousset, *Civilizations de l’Orient*, II, L’Inde, Paris, 1930, p. 171~172)을 얹고 있다; *Mythologie asiatique illustré*, Paris, 1928, p. 93~98)도 볼 것. 시바의 이러한 전통적 유형은 연대 미상 익명의 저술 *Che eul t’ien kong yi kouei*(*Dvādaśadevpūjākālpa?*), T 1298, p. 386 a에 상술되어 있다: 북서부, 대자재천(*Maheśvaradeva*)이라고도 불리는 이샤나(*Íšana*) 신. 그는 누런 황소(?)에 올라타 있다. 오른손은 피범벅이 된 *kie po pei*(*kapāla*, 해골), 왼손은 *san ki tch’ouang*(*triśula*, 혹은 삼지창)을 들고 있다. 몸은 밝은 청색이다. 그 세 눈은 충혈되어 있다. 두 치아는 위로 뺨어 있고, 해골 목골이(*keyūra*)를 두르고 있다. 모자 위로 초승달이 걸려 있다.

2°. *Viṣṇu*. k. 8, p. 116 a; k. 10, p. 128 a 및 Hobogirin, *Bichu*, p. 76~68을 볼 것. - 그의 주 무기는 원반(철륜, 천개의 바퀴살, 태양의 상징)과 소라고둥이다; 이들로 인해 *Śaṅkhacakra dhara*(비슈누의 이명, *Mahābhārata*, 3, 189, 40)라는 수식어를 띤다. 서사시에서 그의 외모는 Hopkins, *Epic Mythology*, p. 204~207; 가루다와 그의 기마 모습에 관해서는 p. 108, 203. Illustrations, *Mythologie asiatique illustré*, p.103 sq 참조.

3°. Kumāra. Kī tsang의 *Madhyamakaśāstra*, T 1824, k. 1, p. 14 c 주석에 의하면, 구마라(Kumāra)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는 첫 범열(*la première extase, the first dhyāna*)의 브라흐마 왕과 다르지 않으며, 청년의 외모를 지녀 이렇게 불린다. 나라야나(*Nārāyana*)라고도 불리는데 존재의 기원을 의미한다. - *Bukkyo daijiten*, p. 310 b에 인용된 *Pi tsang ki*에 의하면, 구마라는 황색의 여섯 얼굴을 하고 칼을 들고 공작에 올라타고 있다. - 바라문교(Brahmanism)의 Skanda왕이다(Hopkins, *Epic Mythology*, p. 227~231). 전쟁의 신, 그는 ‘언제나 젊은’ 사냥구마라(*Sanatkumāra*)인데 브라흐마의 아들 중 하나이다(*Mahābhārata*, 12, 37, 12). Śiva 찬가(*ibid.*, 13, 14, v. 378)에서 그는 공작에 올라타 Umā 곁에서 종과 창을 들고 있다. 그의 탄생은 *Mahābhārata*, 9, 43~46에 전한다. 끄리띠까(*Kṛttikās*, ‘플레이아이드Pléiades’)들이 그를 길렀는데 그들 젖을 빨기 위해 입술이 여섯 개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이유로 그에게 여섯 얼굴을 지닌 신(*ṣaḍānana, ṣaṅmukha*)이라는 수식어가 따른다.

우리는 왜 나가르주나가 이 세 신 즉 마헤슈와라, 비슈누, 구마라에 관해 언급하는지 물을 수 있다. 그런데 *Madhyamakaśāstra*(T 1564, k. 1, p. 1 b)에서 나가르주나는 앞의 두 명의 신만 언급한다. Li tsang이 *Madhyamakaśāstra*(T 1824, k. 1, p. 14 c) 및 아리아데와의 *Śataśāstra*(T 1827, k. 1, p. 243 c~244 a)에 관한 자신의 논서에서 이 물음을 제기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1) 이단의 세 신은 삼신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슈와라는 법신(*dharmakāya*) 같은 뿌리; 비슈누는 보신 같은 쾌락(*sambhogakāya*); 브라흐마는 비슈누의 배꼽에서 변형되어 탄생하였다. 그는 응신에 비유할 수 있다(*nirmāṇakāya*). 그런데 Mppś는 이 삼신(*trois corps, three bodies*)을 알려준다: 그래서 세 신들을 언급하는 것이다.[이것은 오류이다. Mppś는 이신(*deux corps, two bodies*)만 가르치고 있다; Hobogirin, *Busshin*, p. 181을 볼 것]. *Madhyamaka*와 *Śataśāstra*는 오직 법신과 보신 즉 두 신만 교육한다; 이것이 그들이 두 신만 언급하는 이유이다. (2) 브라흐마는 Viṣṇu의 배꼽 속에 있으므로 따로 언급할 여지가 없다.

바라문교의 삼주신(*trimūrti*) 개념과 삼신(*trikāya*) 이해에 적용된 삼위일체 개념은 기나긴 여정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두 체계 속에서는 이원론이 삼위일체론에 우선한 듯하다. 서사시에서는 뒷부분에 가서야 비로소 한 쪽 분량 이내에서 삼주신 개념을 형성한다: *Mahābhārata*, 3, 272, 47. 이후에 탄생한 신들은 비슈누와 시바를 동일 신의 두 모습으로 소개한다; 이들은 정작 삼위일체론을 정립하려 하지 않는다(Cf. Hopkins, *Epic Mythology*, p. 231). 이와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소송의 저술과 대승의 여러 주요 저술들은 붓다의 면모에서 오직 두 신만을 인정한다. 즉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 그리고 법신 혹은 불교 교의. 이로써 삼신 이론(*Les théories du Triple Corps, The theories of the trikāya, Trikaya*)은 오랜 진전을 거친 용어임을 나타낸다. - 이외에도 바라문교의 삼주신(*Trimūrti*)은 불교 스승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비유를 담은 경전들의 예, T 1640, p. 157 c; T 1003, k. 2, p. 611; T 1796, k. 2, p. 595 b.

두 위대하고,³⁷⁰⁾ 일체지³⁷¹⁾를 지닌다고 말해진다. 또한 사람들 가운데 제자가 그 경전을 배우거나 법을 받으면 일체지를 얻었다 한다.]³⁷²⁾

답: 이들은 일체지를 알 수 없다. 혐오³⁷³⁾와 교만³⁷⁴⁾에 묶여³⁷⁵⁾ 있기 때문이다. 계승에 이르지 않.

그려진 신, 조각된 신,
전통의 신, 찬가의 신!
이 네 부류의 신은 저마다
손에 든 무기를 휘두른다.

나약함으로, 다른 신을 두려워하고,
혹은 마음이 악해 다른 신들을 겁내니,
필요에 따라 다른 신을 겁내건
나약해서 다른 신을 두려워하건,

이 신들 모두 영원한 겁쟁이들로서,
소멸의 고통 제거할 수 없어,
이들을 섬기고 공경하는 자
이승의 슬픔 바다에 빠질 수 있다네.

이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자들도
이승에서 부귀 누릴 수 있으니,
이 신들이 헛되며 실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네.
하여 현자는 신들을 믿지 않노라.

세간 모든 존재는
그들의 행위 때문에 생을 들고 돈다네.
여러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고,
여러 잡다한 행위로 인간세에 다시 태어나네.

세간 운명은 원인과 조건에 달려 있네.
이런 까닭에 현자는 신들에 의존치 않노라.³⁷⁶⁾

369) de grands guides, *mahānāyaka*, 大將

370) grandes, *mahat*, 大

371) omniscientes, *sarvajña*, 一切智

372) 영역본에는 생략됨.

373) la haine, the hatred, *dveṣa*, 瞋恚

374) l'orgueil, the pride, *abhimāna*, 驕慢

375) attaché, attached, *abhinivṛta*, 著

376) 신들이 헛되며 실재하지 않기에, 현자들이 신을 믿지 않음을 확인하는 이 시구들은 다소 붓다의 관용에서 벗어난다.

1°. 모든 체계가 까르마의 법칙 그리고 응보의 법칙(*la loi du Karman et de la rétribution*)에 의거

한다는 의미에서 불교는 무신론이다. 존재는 모두 그들의 행위 때문에 윤회한다. 행운이나 불운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행적들이다. 행위가 운명을 대신한다.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들을 선과 악으로 배분할 여지는 전혀 없다. 불교는 언제나 신(*Īśvara*)을 만물의 창조자 및 제어자로 삼는 유신론 체계에 맞서왔다. — *Āṅguttara*, I, p. 174 (=Tchong a han, T 26 (n° 13), k. 3, p. 435 b): 모든 것을 신의 창조(issaranimmāna)로 돌리는 자들은 더 이상 행동에 의욕이 없으며, 스스로 행하거나 피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 산티데와(*Sāntideva*)의 *Bodhicarvāvatāra*, IX, v. 119~126(tr. Lav., p. 135~137): “신은 세계의 원인이다.” — 신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본 요소들인가? 그렇다면 어휘 문제(*nāmamātra*)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그토록 고생할 필요 없다...그대는 우리가 그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신이 위대하다 말하려는가? 또 그의 자질이 사유를 초월한다면 어떻게 그에게 세계 창조의 자질을 부여하는가? 더욱이 그가 창조하려(*sraṣṭum*) 했던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창조물의 ‘자아’ 아트만(*ātman*)인가? 그러나 아트만은 영원하다. 신은 자신을 창조한 것인가? 신은 영원하다. 한편 지식은 신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식은 항상 사물에 선행하기에. 고통과 쾌락은 행위에 선행한다. 신이 창조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 신이 갈망하지 않은 창조라면 분명히 그는 다른 존재에 종속된다. 신이 갈망한 것이라면, 갈망에 종속된다. 따라서 그 행동은 주도적(*īśa*)이지 않다. — *Kośa*, II, p. 311~313; V, p. 19에서 다음과 같이 논쟁이 이어진다: 사물들이 마하데와(*Mahādeva*) 혹은 바수데와(*Vāsudeva*) 신 같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많은 이유로 수용 불가하다: 1. 단 하나의 불변의 원인에 의해 사물들이 만들어졌다면 이들 모두는 동시에 생겨났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이들이 연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들의 탄생 순서가 신 외부에 존재하는 원인들에 따른 것이라면 신은 더이상 유일한 원인이 될 수 없다. 2. 신이 자신의 만족 혹은 피조물들의 만족을 위해 창조한다 하자. 신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창조한다면 그가 얻고 쟁취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는 신이 아니다. 그가 존재들의 만족을 위해 창조한다면 존재들이 모든 고통의 희생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3. 신의 창조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 효력이 입증 가능한 가시적 원인들을 무시하기 위해 근거도 없이 비가시적, 제어 불가능한 원인을 상정하는 것이다.

[불교 무신론 관련하여 Lav., *Atheism*, ERE, p. 183; *Morale*, p. 12~14; Oltramare, *Théosophie*, p. 228~231 참조].

2°. 신의 존재를 일절 부정하는 의미에서 무신론으로서 불교는, 모든 부류의 신성을 자신의 범신전(*panthéon*)에 수용한다는 점에서만큼은 유신론이다. 삼중 세계에는 많은 신들이 산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신은 순간적 성격만 지닌다. 신들은 윤회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동물이 신의 형태로 태어날 수도 있다. 신이 인간 세계나 동물 세계에 환생할 수 있듯이 말이다.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면 대중 종교와 다양한 관계를 맺은 불교는 신들에게 매우 호의적이다. 붓다 샤까모니는 그의 마지막 전생에서 도술천 신들의 왕이었다. 사바세계주(*Brahmā Sahāmpati*)의 요청으로 그는 법을 설한다. 그의 치세 동안 붓다는 모친에게 아비다르마를 설하기 위해 석 달 동안 도술천에 머물렀다. *Lalitavistara*를 훑어보아도 붓다의 전기에서 신들과 천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들은 샤까모니의 동작이 진행되는 배경을 형성한다. 애초에 신과 천인들의 모습은 신도들이 그들에게 공경심의 발로로 헌정한 종교 유적에 새겨져 있다. 불교 범신전의 역사에 관해서는 *The Gods of Northern Buddhism*, Oxford, 1928; Rh. D., *Buddhist India*, p. 210 sq.; Lav., *Dogme et Philosophie*, p. 173을 볼 것; 하지만 최고 고문서들은 신들의 존재와 이들의 신자들을 위한 선행을 주장한다. — *Majjhima*, II, p. 212~213: 상가라와(*Saṅgārava*)가 붓다에게 묻는다: 신들은 존재하는가? “오 바라드와자(*Bhāradvāja*)여,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thānnaṃ me taṃviditaṃ yadītaṃ atthi devā*).” 왜 처음부터 그렇게 천명하지 않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ucce saṃmatāṃ lokasmim*).” — *Digha*, II, p. 88(*Tch'ang a han*, T 1, k. 2, p. 12 c 참조): 인간은 자신의 처소를 마련하려던 곳 어디에서나 자신의 감각을 제어할 줄 아는 선인들을 섬기며 공양물을 바쳤다. 그 지역 모든 신들에게 공양물을 바친 것이다. 추앙과 공경을 누리는 신들은 이번에는 자신이 그 인간을 추앙하고 공경하였다. 신들은 갓 태어난 아이를 대하는 어머니처럼 인간을 다정하게 보듬었다. 신의 은총을 누린 인간은 오직 주위의 행복만 주시하였다. — *Āṅguttara*, III, p. 77: 풍요로운 가정의 아들은 공양의 가치를 지닌(*balipatiggāhikā devatā*) 신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추앙하였다. 그렇게 공양을 받자, 이번에는 친절한 신들이 인간에게 자비심을 베풀며 말했다: “오래오래 장수하시오. 그대의 오랜 삶에 신의 가호를.” 신의 자비를 누리는 가족의 아들에게는 번영만 있지 파산이란 있을 수 없다. — 선신들 모두가 불교로 전향하였다. 이들 모두 붓다의 전언을 섬겼다(*Digha*, III, p. 14; *Majjhima*, I, p. 497 참조). 그리고 자주 인간들에게 불법을 권했다. 신들은 장자 욱가(*Ugga*)의 집에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지복한 자에 의해 법은 잘 설해졌다(*svākhāta, gahapati, Bhagavatā dhamma*); 욱가는 야유하듯 응답했다: ”오 신들이시여, 당신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법은 지복한 자에 의해 잘 설해졌소.”[*Āṅguttara*, IV, p. 211 및 *Madhyamāgama* 한역본, T 26(n° 38), k. 9, p. 481 a] — *Śikṣāsamuccaya*, p. 89에 인용된 *Kṣitigarbhasūtra*의 한

또 이 신들(마헤슈바라, 비쉬누, 꾸마라)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얻기를 원하며, 미워하는 사람들이 일곱 세상 동안 멸하길 바란다. 붓다는 그렇지 않다. 이들이 아직 보살 수준에 머무는 동안이라도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오면 원수³⁷⁷⁾에게 몸,³⁷⁸⁾ 살,³⁷⁹⁾ 머리,³⁸⁰⁾ 눈,³⁸¹⁾ 골수³⁸²⁾와 뇌³⁸³⁾를 바친다.³⁸⁴⁾

구절: ‘데와(*deva*)’ 이래 ‘뺨사짜(*piśācas*)’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은 붓다에게 다음과 같이 보장한다: 우리는 전사이건 가장이건 선법을 관찰하고 삼보를 신앙하는 자를 보호하고, 보전하고, 열 가지 번영을 이루게 하리라. 규칙적으로 그에게 위협을 주는 장애로부터 그의 삶을 벗어나게 하리라. 그의 건강, 지위, 부, 환희, 쾌락, 존엄, 영광, 선한 우정, 지혜의 완성을 증강시키리라. 여기서 ‘회화, 조각, 전통, 찬가의 신들’에 대하여 펼쳐는 공격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교 전통을 감안해야 한다. 나가르주나가 공격한 것과 같은 신들과는 다른 문제로, 지존의 반열에 자신들을 올려놓으려는 분파들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다.

377) ses ennemies, his enemies, *amitracatura*, 賊

378) son corps, his body(*tanus*), 身

379) sa chair, his flesh(*māmsa*), 肉

380) sa tête, his head(*sīras-*), 頭

381) ses yeux, his eyes(*nayana*), 目

382) sa moelle, his marrow(*majjā*), 髓

383) son cerveau, his brain(*mastaka*), 腦

384) 전생에서 미래의 붓다가 이룩한 자비의 기적들. 유사한 예들의 나열, k. 12, p. 146 b 3, 150 b 2; k. 17, p. 180 a 23. Mppś의 이 본생담들(*jātakas*)은 인도 서북부의 『황금 전설(*Légende dorée, Golden Legends*)』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북방 불교와의 교류를 입증한다. 여기 인용한 처음 네 기적들을 Fa hien이 언급한 ‘북인도 사대 탐’에 기리고 있다, T 2085, p. 858 c 11(tr. Legge, p. 32). 우디아나(Uḍḍiyāna)와 간다라(Gandhāra)를 횡단한 중국 순례자들—400년경의 Fa hien과 500년경의 Dong yun, 630년경의 Hiuan tsang—도 이곳을 방문하였다. 이들의 이동 경로는 고고학자들에 의해 정확히 확인되었다(Foucher, *Art Gréco-bouddhique*, I, p. 8~9).

(1) ‘몸 보시’, Mppś, k. 16, p. 170 b 26~28: 암호랑이가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으려는 순간 보디샛뜨와가 암호랑이에게 자신의 육신을 보시한다. 다른 출전 특히 *Suveṇaprabhāsa*를 통해 보디샛뜨와가 마하라타(Mahāratha)의 아들, 뽀짚라스(Pañcalas)의 왕 마하사뜨와(Mahāsattva)였음을 알 수 있다. 형제로 마하쁘라나다(Mahāprānada)와 마하데와(Mahādeva)를 두고 있었다.

산스크리트 출전: *Suvarṇaprabhāsa*, ch. 18: *Vyāghrīparivarta*(ed. Hokei Odzumi, p. 185~213; ed. Nobel, p. 201~240; *Jātakamālā*, ch. 1: *Vyāghrījātaka*(ed. Kern, p. 2~8); *Avadānakalpalatā*, ch. 51, v. 28~59(ed. Chandra Das, II, p. 53~61).

한역 출전: *Lieou tou tsi king*, T 1532(n° 4), k. 1, p. 32 b(tr. Chavannes, *Contes*, I, p. 15~17); *P’ou sa pen hing king*(T 155, k. 3, p. 119 a 25; *Pen cheng man louen*, T 160(n° 1), k. 1, p. 332 b ~ 333 b; *P’ou sa t’eu sseu ngo hou k’i t’a yin yuan king*, T 172, Vol. III, p. 424 b ~ 428 a; *Hien yu king*, T 202 (n° 2), k. 1, p. 352 b ~ 353 b(tr. Schmidt, *Der Weise und der Thor*, p. 21~26); *Kin kouang ming king*(T 665 (n° 26), k. 10, p. 450~456; *King liu yi suang*(T 2121, k. 31, p. 162).

‘몸 보시’ 탐(Le stūpa du ‘don du corps’, Mahaban 남동부, Banj 곳)을 Fa hien이 방문함, T 2085, p. 858 b 9(tr. Legge, p. 32), *Song yun*, T 2092, k. 5., p. 1020 b 7(tr. Chavannes, *Voyage de Song Yun*, BEFEO, III, p. 411 및 Hiuan tsang, T 2087, p. 885 c 14~20(tr. Beal, I, p. 145~146; Watters, I, p. 253).

도상학(Iconographie): *Mathurā*, J. Ph. Vogel, *La sculpture de Mathurā*, Paris, 1930, p. 62 및 pl. XX. — 중앙아시아, A. Grünwedel, *Altbuddhistische Kultstätten*, Berlin 1912, fig. 446. 447; A. von Le Coq — E. Waldschmidt, *Budd. Spätantike*, VI, 24~25. — *Formosa*, G. Ecke — P. Demiéville, *Twin Pagodas of Zayton*, Cambridge, Mass., 1935, 41쪽 아래.

(2) ‘살 보시’는 k. 4, p. 87 c ~ 88에 상세히 기술함.

(3) ‘머리 보시’: 바다라실라(Bhadraśilā)의 왕 잔드라쁘라바(Candraprabha)(타 출전에 의하면 ‘바라나시(Vāraṇasī)’의 ‘마하쁘라하사(Mahāprahāsa)’ 왕)가 그 자비로 유명하다. 브라흐만 라우드락사르(Raudrākṣar)가 그에게 머리를 요구하였다. 두 장관 마하잔드라(Mahācandra)와 마히드하라(Mahīdhara)이 값진 재화로 이루어진 머리를 제공하지만 브라흐만이 이를 거절한다. 왕이 자기 머리 카락을 나무에 묶고 스스로 자신의 목을 베어 브라흐만에게 건넨다. — 중국 순례자들은 이 장면의

하물며 붓다가 되어 더 이상 목숨을 아쉬워하겠는가? 이러한 까닭에 오직 붓다만이 붓다의 이름을 지닐 수 있으니, 당연히 붓다에 귀의하고,³⁸⁵⁾ 스승으로 모실 일이나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르와나로따마 SARVANAROTTAMA³⁸⁶⁾

더욱이 붓다는 두 가지를 지닌다. 하나는 위대한 공덕³⁸⁷⁾과神通력³⁸⁸⁾이요, 둘은 절대 순수한

무대를 탁실라(Takṣasīlā)로 상징한다. 샤반느(Chavannes)는 이 Takṣasīlā라는 이름이 잘못된 어원에 근거하여 탄생한 것이라고 한다: Takṣasīra(목 베기) = 베인 목, Takṣasīlā(바위 베기 = 베인 바위. - 적어도 미래의 붓다는 천 번이나 지속되는 삶 동안 자신의 머리 보시를 천 번이나 되풀이한다.

산스크리트프 출전: *Divyāvadāna*, ch. 22, p. 314~328; *Avadānakalpalatā*, ch. 5(vol I, p. 154~175).

한역 출전: *Lieou tou tsi king*, T 152(no. 5), k. 1, p. 2 b~c(tr. Chavannes, *Contes*, I, p. 17~19); *P'ou sa pen yuan king*(T 153, n° 5, k. 2, p. 62 c - 64 c; *Ta fang pien fo pao ngen king*, T 156, k. 5, p. 149 b ~ 150 b; *Yue kouang p'ou sa king*, T 166, vol III, p. 406~408(Divyāvadāna와 상응); *Hien yu king*, T 202(n° 31), k. 6, p. 387 b ~ 390 b(cf. Schmidt, *Der Weise und der Thor*, p. 174~183); *P'i p'o cha*, T 1545, k. 114, p. 593 a 26; *King liu yi siang*, T 2121, K. 25, p. 137 a~c.

샤하데리(Shah-Dheri) 부근의 '머리 보시' 탑을 방문한 순례자: Fa hien(T 2085, p. 858 b 7~8(tr. Legge, p. 32) 및 Hiuan tsang, T 2087, k. 3, p. 884 c 21~23(tr. Beal, I, p. 138; Watters, I, p. 244).

(4) '눈 보시': 시비(Śibi) 왕이 자신을 독수리(혹은 브라흐만)로 바꾸어 놓은 Śakra 왕에게 자신의 눈을 보시한다. 보시는 보상 받아 그는 곧 시력을 회복한다.

빠알리 출전: *Śibijātaka*, n° 499(*Jātaka*, IV, p. 401~412); *Cariyāpiṭaka*, I, 8, p. 77~78 (tr. Law, p. 99~100); *Milinda*, p. 119 sq. (tr. Rh. D., p. 179).

산스크리트프 출전: *Avadānaśataka*, I, p. 182~186(tr. Feer, p. 124~127); *Jātakamalā*, chap. 2: *Śibijātaka*, p. 6~14(tr. Speyer, p. 8~19).

한역 출전: *Siuian tsi po yuan king*, T 200(n° 33), k. 4, p. 218 a~c; *Hien yu king*, T 202(no. 32), k. 6, p. 390 b ~ 392 c(Schmidt, *Der Weise und der Thor*, p. 288~300 참조). Carsadda 부근 Puškarmavati에 소재한 '눈 보시 탑'을 Fa hien(T 2085, p. 858 b 4~5(tr. Legge, p. 31)과 Hiuan tsang(T 2087, k. 2, p. 881 a 23~24(tr. Beal, I, p. 110; Watters, I, p. 215)이 방문함.

(5) '골수 보시': 우뜨빨라(Utpala) 왕 시절 보디삿뜨와는 부러진 뼈를 펜 삼고, 골수를 잉크 삼고, 그 살갓을 양피지 삼아 다르마에 관한 글을 썼다. 이 일화가 소개된 글. *Kien yu king*, T 202, k. 1, p. 351 b(cf. Schmidt, *Der Weise und der Thor*, p. 15; P. E. Foucuax, *Grammaire de la langue tibétaine*, Paris, 1858, p. 211~212); *P'ou sa pen jing king*, T 155, k. 3, p. 119 b 16. 이 장면은 버너(Buner)의 투르삭(Tursak) 부근, 굴바타이(Gumbatai) 소재의 랑티르 승원(Couvent des lentilles)에서 진행되었으며, 방문자는 Song Yun(T 2092, k. 5, p. 1020 b 11~14, tr. Chavannes, BEFEO, III, p. 412)과 Hiuan tsang(T 2087, k. 3, p. 883 a 12~13, tr. Beal, I p. 124; Watters, I, p. 233~234). 이 일화는 Mppś, k. 16, p. 178 c 및 k. 49, p. 41 2 a에도 보이는데 주인공 브라흐만 다르마라따(Ngai fa, Dharmarakta) 혹은 다르마라따(Lo fa, Dharmarata)가 등장한다; 이외에도 그는 시를 쓰기까지 한다. "피부로 골피지 삼고 피로 잉크 삼아"; 골수 언급은 없다. 따라서 Mppś는 골수 언급은 염두에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

차라리 나[라모트]는 '골수 보시'와 관련하여 찰드라쁘라브하(Candraprabha) 왕이 자신의 팔을 부러뜨려 어느 병자에게 그 골수를 치료제로 제공한 본생담의 비유를 보고자 한다. 이 선행은 Mppś, k. 12, p. 146 b에도 등장한다. 위에서 언급한 왕이 우뜨빨라로 불리듯 이 사실은 라뜨나꾸따(Ratnakūta)에도 알려져 있었다(cf. *Ta pao tsi king*, T 310, k. 111, p. 631 a; *Maitreyapariṣicchā*, T 349, p. 188 c; King liu yi siang, T 2121, k. 10, p. 55 b).

385) rendre hommage, pay homag, *namas-*, 歸命

386) 勝一切人

387) les grandes qualités, the great qualities(*guṇa*), 功德

388) la force des supersavoirs, the power of the superknowledges(*abhijñā*), 神通力

마음³⁸⁹)과 모든 속박의 소멸³⁹⁰)이다. 비록 신들이 복덕³⁹¹)과 신력³⁹²)을 지니긴 했어도 번뇌가 소멸된 것은 아니니 그 마음은 순수하지 않다.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니 신통력 역시 대단치 않다. 스라바까와 프라트예까붓다의 경우 번뇌가 소멸되고 마음도 순수하다. 하지만 이들의 복덕은 제한적이라 그들의 힘³⁹³)은 약하다. 붓다의 두 품성[복덕과 마음의 순수함]은 완벽하다.³⁹⁴) 이러한 까닭에 붓다는 사르와나로따마라 하니 나머지 어느 누구도 만인을 이길 수 없다.

여타 수식어들

바가와뜨³⁹⁵)는 덕을 지님을 뜻하는데,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이렇게도 불린다:
 아 소 모(A so mo, *Asama*),³⁹⁶) [진나라 말로 무등³⁹⁷)],
 아 소 모 소 모(A so mo so mo, *Asamasama*), [ibid., 무등등³⁹⁸)],
 루 키 아 나(Lou kia na t'a, *lokanāta*), [ibid., 세존³⁹⁹)],
 뿔 로 끼(Po lo k'ie, *pāraga*), [ibid., 도피안⁴⁰⁰)],
 뽕 탄 토P'o t'an t'o, po, *bhadanta*) [ibid., 거룩한 분⁴⁰¹)],
 체 키 리 나Che li k'ie na, *śrīguṇa*) [ibid., 아름다움의 완성⁴⁰²)],
 이처럼 붓다는 무수한 명호를 지니고 있었다. 부모는 그를 시 타 토*Si ta t'o*(Siddhārtha), [진나라 말로 ‘이루어진-이로움’]⁴⁰³)라 불렀다. 길을 발견하고 모든 법을 깨우치고부터 그는 붓다라 불렸다. 신들과 인간으로부터 공양⁴⁰⁴) 받아 마땅한 그였기에 ‘거룩한 분’,⁴⁰⁵) ‘후덕’⁴⁰⁶)이라 불렸다. 이렇게 그의 덕에 근거하여 여러 다양한 이름을 붓다에게 부여하였다.

389) une pensée absolument pure, an absolutely pure mind, *paramaśuddhacitta*, 第一淨心
 390) la destruction des entraves, the destruction of the fetters, *saṃyojananirodha*, 諸結使滅
 391) un ensemble de mérites, an accumulation of merit, *puṇyasambhāra*, 福德
 392) une force miraculeuse, a miraculous power, *ṛddhibala*, 神力
 393) leur pouvoir, their power(*prabhāva*), 力勢
 394) parfaites, perfected, *paripūeṇa*, 滿足
 395) Bhagavat, 婆伽婆
 396) ‘Asamasama(無等等)’라는 수식어가 발견되는 경전들의 예: *Saddharmapuṇḍarīka*, p. 456, *Mahāvastu*, III, p. 231, *Mahāvvyutpatti*, n° 529, 6379. Burnouf와 Kern은 이를 ‘동등한 것 없는 것과 동등한’이라 번역한다; 하지만 이전의 번역어들은 다양하다: (1) ‘완벽히 비교 불가능한’(T 1718, k. 10, p. 1712); (2) 붓다들은 존재들과 동등하지 않으나(*asama*) 법신은 본질상 동등하다 (*sama*)(T 1522, k. 2); (3) 붓다와 붓다 아닌 존재 사이에 동등이란 없다. 오직 붓다와 붓다 사이에만 동등이 있다(T 1775, k. 1; T 1721, k. 12); (4) 구지(九地)에서는 존재의 마음이 본래 사물들과 동등해질 수 없다. 오직 붓다의 경지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붓다의 마음은 동등하지 못한 존재와 동등하다(T 1728, k. 10). 이와 마찬가지로 여섯 빠라미다는 동등 불가한 붓다와 동등하다(T 1509, k. 40). 이들 다양한 해석이 Hobogirin, *Ashamashama*, p. 38에 집약되어 있다.
 397) Sans égal, Without equal, 阿婆磨(無等)
 398) égal à ce qui n'est pas égal, equal to that which is without equal, 阿婆磨婆磨(無等等)
 399) protecteur du monde, protector of the world, 路迦那陀(世尊)
 400) parvenu à l'autre rive, having reached the other bank, 波羅伽(度彼岸)
 401) Vénérable, Venerable one, 婆檀陀(大德)
 402) Perfection de beauté, Perfection of beauty, 尸梨伽那(厚德)
 403) Profit-réalisé, Profit-realized one, 成利(悉達陀)
 404) le culte, the worship, *pūjā*, 供養
 405) Bhadanta
 406) Sriguna

일체지인 붓다 LE BUDDHA OMNISCIENT

물음: 그대는 크샤트리아⁴⁰⁷⁾ 가문의 벗이로다. 슈도다나⁴⁰⁸⁾ 왕의 아들로써 붓다는 싯다르타⁴⁰⁹⁾로 불렸다. 그대가 붓다를 칭찬하기 위해 일체지⁴¹⁰⁾라고 칭하지만 일체지인이란 없다.

답: 그렇지 않다. 그대는 사악함으로 붓다를 시기하고 비방하는구나. 일체지인은 실재한다. 왜 그러한가? 모든 존재 가운데 아름다움⁴¹¹⁾, 우아함,⁴¹²⁾ 완벽함⁴¹³⁾에서 그와 견줄 이 아무도 없다. 그 특성,⁴¹⁴⁾ 그 공덕,⁴¹⁵⁾ 그 총명함⁴¹⁶⁾으로 모든 사람을 능가한다.⁴¹⁷⁾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붓다의 몸의 면모⁴¹⁸⁾만 보아도 일체지를 알아볼 수 있거늘 하물며 위인⁴¹⁹⁾이 모르겠는가! 『방우비유경』⁴²⁰⁾에는 이렇게 말해진다.

마가다⁴²¹⁾ 국왕 빔바사라⁴²²⁾가 붓다와 오백 제자를 석 달 동안 모셨다. 왕은 신선한 우유⁴²³⁾와 크림⁴²⁴⁾을 붓다와 비구 상가에 공양하고 싶었다. 왕은 소 키우는 사람들⁴²⁵⁾에게 근방에 거처하며 날마다 신선한 우유와 크림을 올리라 했다. 석 달이 흘러 왕이 이들을 어여뻐 여겨 다

407) Kṣatria, 汝愛刹利

408) Śuddhodana, 淨飯

409) Siddhārtha, 悉達多

410) sarvajña, 一切智

411) la beauté, the beauty, *rūpa*, 身色

412) la grâce, the grace, *prasāda*, 顏貌

413) la perfection, the perfection, *ṛjutva*, 端正

414) ses marques, his characteristics, *lakṣaṇa*, 相

415) ses qualités, his qualities, *guṇa*, 德

416) son éclat, his brilliance, *āloka*, 明

417) l'emporter sur tous les hommes, to surpasses all men, *sarvanarottama*, 勝一切人

418) ses marques physiques, his physical marks, *kāyalakṣaṇa*, 身相

419) le grand mâle, the Great Man, *mahāpuruṣa*, 大人

420) *Fang nieou p'i yu king*, *Gopālakāvādānasūtra*, 放牛譬喻經

양우법 특히 소매의 증산을 위해 관찰해야 할 열한 가지 법이 여러 문서에 동일한 용어로 기술되어 있다. 문헌은 두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Mahāgopālakasutta* 및 *Gopalalāvadāna*.

I) 두 빠알리 본과 네 한역본 *Mahāgopālakasutta*:

(i) *Majjhima*, I, p. 220~224(tr. Chalmers, I, p. 157~159; *Neumann*, I, p. 514~523.

(ii) *Āṅguttara*, V, p. 347~353(tr. Woodward, V, p. 224~227; *Nyanatiloka*, V, p. 514~518).

(iii) 한역 *Samyukta: Tsa a an*, T 99(n° 1248), k. 47, p. 342.

(iv) 한역 *Ekottara: Tseng yi a han*, T 125, k. 46, p. 794.

(v) Kumārajīva 번역 단행본(제명 *Fang nieou king*), T 123, p. 546.

(vi) Hiuan tsang 번역 단행본(제명 *Yuan k'i king*), T 124, p. 547.

II) 산스크리트 단편으로 전해진, 근래 경전의 전개, *Gopālakāvādāna* 및 두 한역본 총서:

(vii) *Kalpanāmaṇḍitikā*, ed. Lüders, p. 177~178

(viii) *Ta tchouang yen louen king*, T 201(n° 61), k. 11, p. 316 b ~ 319 a(tr. Huber, *Sūtrāṃkāra*, p.308~313).

(ix) *Ta tche tou louen*, T 1509, k. 2, p. 73 b ~ 74 c.

소 키우는 사람들의 열한 가지 법 번역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른다. S. Lévi가 빠알리 경전과 한역본 n° iii, iv 와 viii(*Aśvaghōṣa, Le Sūtrāṃkāra et ses sources*, JA, July~Sept., 1908, p. 140~144).을 비교하였다. 이 출전들의 비교는 너무 길기에 이하 열 한 법의 산스크리트와 빠알리 구절을 소개한다.

421) *Mo k'ie t'o*, Magadha, 摩伽陀

422) *P'in p'o so lo*, Bimbāsāra, 頻婆娑羅

423) du lait frais, fresh milk, *navanīta kṣīra*, 新乳

424) la crème, cream, *sarpais-*, 酪酥

425) des bouviers, the cow-herders, *gopālaka*, 放牛人

음과 같이 말했다. “가서 붓다를 뵈고 돌아와 소를 돌보라.” 붓다의 거처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서로 이렇게 상의해 보았다. “붓다가 일체지인이라 하는데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가 일체지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바라문들은 크림을 좋아하여 늘 이들을 찾아 오곤 했기에 소 키우는 사람들과 사이가 좋았다. 이들은 바라문들로부터 갖가지 경과 바라문의 서적들을 들어 왔다. 이들이 우리에게 네 베다⁴²⁶⁾와 여기에 담긴 학문 즉 병 치료법,⁴²⁷⁾ 전투법,⁴²⁸⁾ 천문,⁴²⁹⁾ 희생제의,⁴³⁰⁾ 노래,⁴³¹⁾ 교육,⁴³²⁾ 대화⁴³³⁾를 가르쳐 주었다. 간단히 말해 세간의 예순여섯 기술⁴³⁴⁾을 알려주지 않았던가.⁴³⁵⁾ 슈도다나의 아들 정도면 현명하고 교육받은⁴³⁶⁾ 자이기에, 그가 이런 일들에 대해 통달하고 있다면 우리로서는 반박할 도리가 없다. 하지만 우리처럼 태어날 때부터 소를 돌본 적이 없으니 소 돌보는 법을 물어보도록 하자. 붓다가 이마저 말고 있다면 진정 일체지인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며 대나무 정원⁴³⁷⁾으로 들어간 이들은 숲을 밝히는 붓다의 광명을 보고 나무 아래 앉아 있는 붓다 앞으로 다가갔다. 붓다의 모습은 황금산과 같고, 타오르는 기름 불꽃을 뿜어 내듯 거대한 빛으로 자신을 태우고 있어, 금을 녹여 죽림 사이로 황금빛을 뿌리는 듯하였다. 지루한 기색 없이 하염없이 그 빛을 바라보던 이들 마음은 환희로 가득하여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이 석가(Śākya)족 사자는
일체지인인가? 일체지인이 아닌가?
이를 보고 기뻐하지 않을 자 없으니,
질문 던질 필요조차 없도다.

그 빛의 밝기 최고이고,
얼굴 모습 고귀하고 중후하고,
몸매는 위엄과 덕을 갖추었으니,
서로 붓다라고 칭송하네.

모습마다 모두 명확하고,
그 능력 총만하여,
복과 공덕 서로 하나로 얽혀,
그를 보고 사랑하지 않을 자 없네.

426) Wei t'o, Vedas, 達陀

427) la thérapeutique, therapeutic, *bhaiṣajya*, 治病法

428) l'art militaire, the military art, *kṣatradharma*, 鬪戰法

429) l'astronomie, the astronomy, *jyotiṣa*, 星宿法

430) les rites du sacrifice, the sacrificial rites, *yajñadharma*, 祠天法

431) le chant, chants, *gītā*, 歌舞

432) l'enseignement, the teaching, *upadeśa*, 論議

433) la dialectique, the dialectic, *codyadharma*, 難問法

434) les arts, *kalā*, 伎藝

435) 세간의 예순여섯 기술은 *Sūtrāṃkāra*, tr. Huber, p. 311~312에 열거되어 있다.

436) instruit, learned, *bahuśruta*, 多聞

437) Tchou yuan, Veṇuvana, 竹園

둥근 빛⁴³⁸)으로 그 몸 감싸고,
보는 사람 모두 싫은 기색 없으니,
일체지인이 있다면
반드시 이러한 공덕을 지니리.

온갖 그림도,
보배와 장식물과 형상으로,
이 신묘한 모습을 닮게 만들려 해도,
그와 같아질 수 없네

관조하는 모두를 충족시키고
최상의 행복 누리게 할 수 있고,
그를 보면 깨끗한 믿음 발하게 되니
그는 분명 일체지인이라.

이러한 생각으로 붓다에게 예를 올리고 자리에 앉아 붓다에게 물었다. 소 키우는 사람이 몇 가지 법을 지켜야 소떼⁴³⁹가 번식하고⁴⁴⁰, 몇 가지 법을 게을리해야 소 떼의 증식⁴⁴¹이 줄어들겠습니까? 붓다가 답하였다. “만일 열 한 법을 지키면 능히 소 떼를 증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ekādaśabhir aṅgaih samnvāgato gopālako bhavyo gogaṇaṃ pariharitum spjātikartum*).” 열 한 법이란 무엇인가?⁴⁴² 그는 1. 색깔들을 안다(*rūpaṃ jānāti*).⁴⁴³ 2. 변별적 징후를 안다(*lakṣaṇāni jānāti*).⁴⁴⁴ 3. 솔질할 줄 안다(*āsātikāḥ sātayati*).⁴⁴⁵ 4. 상처를 덮을 줄 안다(*vraṇaṃ praticchādayati*).⁴⁴⁶ 5. 연기 피울 줄 안다(*dhūmaṃ kartā bhavati*).⁴⁴⁷ 6. 편한 길을 안다(*vīthiṃ jānāti*).⁴⁴⁸ 7. 소에게 필요한 것을 안다(*pīthaṃ jānāti*).⁴⁴⁹ 8. 건널 곳을 안다(*tirthaṃ jānāti*).⁴⁵⁰ 9. 좋은 방목처를 안다(*gocaraṃ jānāti*

438) une auréole, halo, *vyomaka*, 圓光

439) son troupeau, his herd(*gogaṇa*), 牛群

440) prospère, prospers, *spātīkr-*, 番息

441) sa prospérité, its prosperity, *yogakṣema*, 成就

442) 나[Lamotte]는 *Kalpanāmaṇḍitikā*, p. 177에서 이 열한 법에 상응하는 산스크리트 어휘를 찾았다. 이들은 정확히 빠알리 경전(*Majjhima*, I, p. 222; *Aṅguttara*, V, p. 351)과 일치하며 그 배열 순서만 차이를 보인다: (1) *rūpaññū hoti*, (2) *lakkhaṇakusalo hoti*, (3) *āsātikāṃ sātetā hoti*, (4) *vaṇaṃ paṭicchādetā hoti*, (5) *dhūmaṃ kattā hoti*, (6) *tithaṃ jānāti*, (7) *pītaṃ jānāti*, (8) *vītaṃ jānāti*, (9) *gocarakusalo hoti*, (10) *sāvasesadohī hoti*, (11) *ye te usabhā gopitaro gopariṇayakā te atirekapūjāya pūjetā hoti*.

443) Il connaît les couleurs, He knows their colors. *rūpaṃ jānāti*, 知色

444) Il connaît les signes distinctifs, He knows the distinctive marks, *lakṣaṇāni*, 知相

445) Il sait broser, He knows how to brush them, *āsātikāḥ sātayati*, 知刮刷

446) Il sait recouvrir les blessures, He knows how to heal their wounds, *vraṇaṃ praticchādayati*, 知覆瘡

447) Il sait faire de la fumée, He knows how to make smoke, *dhūmaṃ kartā bhavati*, 知作煙

448) Il connaît les bons chemins, He knows the good paths, *vīthiṃ jānāti*, 知好道

449) Il connaît les besoins du troupeau, He knows what the herd needs, *pīthaṃ jānāti*, 知牛所宜處. *Pītaṃ jānāti*, 산스크리트 *‘pīthaṃ jānāti’*는 난해하다. 빠알리 *‘pīta’*는 음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붓다고사는(*Papañca*, II, p. 259)는 이 규율을 이렇게 주석한다: *gopālakena hi imāya gāvīyā pītam, imāya na pītam, imāya pānīyatitthe okāso laddho, imāya na laddho ti evaṃ pītam jānitabbaṃ hoti*. TTr. 진정 소 키우는 사람과 더불어 이 사람은 소에게 물을 먹이거나, 먹이지 않

).⁴⁵¹⁾ 10. 우유를 남길 줄 안다(*sāvaśeṣadohī bhavati*).⁴⁵²⁾ 11. 우두머리 소를 대접할 줄 안다(*ye ca te ṛṣhabhā gavāṃ patayas tān atirekapūjāya pūjayitā hoti*).⁴⁵³⁾ 소 키우는 사람이 이러한 법을 지키면 소를 늘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빅슈도 이 열 한 가지 법을 알면 선한 법칙들⁴⁵⁴⁾을 고양할⁴⁵⁵⁾ 수 있다.

1) 어떻게 색깔들을 아는가? 검은색,⁴⁵⁶⁾ 흰색,⁴⁵⁷⁾ 잡색을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빅슈도 모든 물질이 사대 요소⁴⁵⁸⁾ 혹은 이 사대로부터 파생한 요소들⁴⁵⁹⁾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있다.⁴⁶⁰⁾

2) 어떻게 변별적 징후를 아는가? 좋은 징후 혹은 좋지 않은 징후를 아는 것이다. 다른 소 떼와 섞여도 이 징후로 구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빅슈도 선업의 모습을 보면 그가 현자⁴⁶¹⁾임을 알고, 악업의 모습을 보면 그가 우인⁴⁶²⁾임을 안다.⁴⁶³⁾

3) 어떻게 솔질할 줄 아는가? 만약 온갖 벌레⁴⁶⁴⁾가 달라붙어 [짐승들의] 피를 빨아먹으면 상처가 늘어나지만, 소 먹이는 사람이 솔질⁴⁶⁵⁾을 잘하면 그 해를 없앨 수 있다. 빅슈도 이와 같다. 사악한 생각과 눈은 선근⁴⁶⁶⁾의 피를 빨아 마음의 상처⁴⁶⁷⁾를 늘이니 이들을 제거하면 곧 안전하리라.⁴⁶⁸⁾

4) 어떻게 상처를 덮어주나? 소 키우는 이는 천 조각⁴⁶⁹⁾ 혹은 풀⁴⁷⁰⁾ 또는 나뭇잎⁴⁷¹⁾으로 모기⁴⁷²⁾와 [등에]⁴⁷³⁾의 해로운 흡혈을 보호한다. 빅슈도 이처럼 올바른 법칙(*yi tcheng fa*,

았으며, 물 먹일 기회를 얻거나, 얻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소먹이는 법을 알았던 것이다. 산스크리트 *'pītham'*은 물 혹은 음료를 의미하는데 '시간' 혹은 '때'를 의미할 수도 있다. *'Pītham jānāti'*는 "그는 때를 알고 있다."를 의미할 수 있다. 적어도 꾸마라지바가 『소 키우는 사람들 경(*Sūtra des bouviers*)』에 번역한 표현들의 의미는 이러하다. T 123: 그는 열이 있는 암소들을 알고 있다(*ngai nieou*). - T 201: 그는 소의 발정을 일으키거나 잠재울 줄 안다. - T 1509: 그는 소 떼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

450) Il connaît les gués, He knows the fords, *tīrtham jānāti*, 知好度濟

451) Il connaît les bons pâturages, He knows the good pasturs, *gocaram jānāti*, 知安隱處

452) Il sait laisser du lait, He knows how to milk them, *sāvaśeṣadhi bhavati*, 知留乳

453) Il sait entourer de respect les chefs du troupeau, He knows how to pay respect to the leaders of the herd, *ye ca te ṛṣhabhā gavāṃ patayas tān atirekapūjāya pūjayitā hoti*, 知養牛主

454) ses bons Dharma, his good dharmas, *kuśaladharmā*, 善法

455) progresser, progress, *vardhayati*, 增長

456) la couleur noire, the black, *kṛṣṇa*, 黑

457) la couleur blanche, the white, *avadāta*, 白

458) les quatre grands éléments, the four great elements, *mahabhūta*, 四大

459) de matière dérivée de ces quatre éléments, matter derived from the four elements, *upādāyarūpa*, 四大造

460) *Anguttara*, V, p. 351: *bhikkhu yaṃ kiñci rūpaṃ cattāri ca mahūbhūtāni catunnañ ca mahābhūhūtānam upādāya rūpan ti yathābhūtaṃ pajānāti*.

461) le sage, a wise person, *paṇḍita*, 智人

462) un sot, a fool, *bāla*, 愚人

463) *Ibid.*, p. 351: *bhikkhu kammalakkhaṇo bālo kammalakkhaṇo paṇḍito ti vathābhūtam pajānāti*.

464) les insectes, the insects, *āsātikā*, 虫

465) brosse, brushes, *sātayati*, 刮刷

466) les racines de bien, the roots of good, *kuśalamūla*, 善根

467) les plaies de la pensée, the wounds of the mind, *cittavraṇa*, 心瘡

468) la sécurité, safety, *yogaḥṣema*, 安隱

469) des étoffes, cloth, *paṭa*, 衣

470) des herbes, herbs, *tṛṇa*, 草

471) des feuilles, leaves, *parṇa*, 葉

472) les moustiques, the mosquitoes, *maśaka*, 蚊

*saddharmena*를 읽을 것)⁴⁷⁴에 의거하여 육정⁴⁷⁵으로 생긴 상처를 덮는다. 그는 갈망, 혐오, 어리석음⁴⁷⁶이라는 해충의 상처가 번지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5) 어떻게 연기를 피울 줄 아는가? 연기를 피워 모기와 등에를 몰아내면 그 연기를 보고 소들이 멀리서도 우리로 향해 가게 되어 있다. 빅슈도 이처럼 배운 법칙에 따라 설하고⁴⁷⁷ 번뇌의 모기와 등을 쫓아내야 한다. 자신들의 법칙⁴⁷⁸의 연기로 빅슈들은 존재들을 나 없음,⁴⁷⁹ 진정한 특성,⁴⁸⁰ 비어 있음⁴⁸¹의 집 안으로 인도해야 한다.

6) 어떻게 편한 길을 알 수 있는가? 소먹이는 사람은 소가 다니기 좋은 길과 나쁜 길을 알고 있다. 빅슈도 이처럼 니르바나에 이르는 숭고한 팔성도⁴⁸²를 알아⁴⁸³ 소멸⁴⁸⁴과 영원⁴⁸⁵이라는 나쁜 길을 피해 가야 한다.

7) 소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소먹이는 사람은 소가 늘고 병이 없도록 한다. 빅슈도 이처럼 소먹이는 사람에게 붓다의 법칙을 설하면서 그 순수한 희열⁴⁸⁶을 체험하여 선한 근본⁴⁸⁷이 증대한다.⁴⁸⁸

8) 건널 곳을 어떻게 아는가? 소먹이는 사람은 물에 들어가 건너기 쉽고, 거센 물결⁴⁸⁹이 일지 않고, 해충 없는 곳을 안다. 빅슈도 이처럼 대학승⁴⁹⁰을 찾아 법을 묻는다. 법칙을 설하는 자⁴⁹¹는 청중의 생각이 예리한지⁴⁹² 둔한지,⁴⁹³ 번뇌가 가벼운지 무거운지 미리 간파하여 청중을 건너기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안전하게⁴⁹⁴ 건너게 한다.⁴⁹⁵

9) 좋은 방목처를 어떻게 아는가? 소먹이는 사람은 호랑이,⁴⁹⁶ 사자,⁴⁹⁷ 해충이 없는 곳을 안

473) 虻[한역본에만 등장]

474) la bonne loi, the holy Dharma, 正觀法

475) 즉 눈, 귀, 코, 혀, 몸, 의식인 여섯 감각 기관의 만족(Chavannes, *Contes*, I, p. 98, n. 1).

476) Désir, Haine et Sottise(煩惱貪欲瞋恚)

477) les enseignements reçus, the teachings he has received, *yathāśruta*, 所聞

Anguttara, V, p. 352: *bhikkhu yathāsutam yathāpariyattam dhammam vitthārena paresam desitā hoti*.

478) leur prédication, their preaching, *dharmadeśana*, 說法

479) le Non-moi, the non-self, *anātman*, 無我

480) le Vrai caractère, the true nature, *satyalakṣaṇa*, 實相

481) le Vide, the emptiness, *sūnya*, 空

482) huit branches, the eightfold noble path, *āryāṣṭāṅgika mārga*, 八聖道

483) *Ibid.*, p. 352: *bhikkhu ariyam aṭṭhaṅgikam maggam yathābhūtam pajānāti*.

484) l'anéantissement, the nihilism, *uccheda*, 斷

485) l'éternalisme, the eternalism, *sāśvata*, 常

486) la joie pure de la loi, the pure joy of the Dharma, *viśuddhadharmaveda*, 清淨法喜

487) ses racines de bien, his roots of good, *kuśalamūla*, 善根

488) *Ibid.*, p. 352 : *bhikkhu, tathāgatappavedile dhammavinaye desiyamāne, labhati atthavedaṃ labhati dhammavedaṃ labhati dhammūpasamhitaṃ pāmujjaṃ*. — Buddhaghosa(*Papanca*, I, p. 173)에 의하면, 'dhammaveda'라는 표현의 '~veda'는 희열 'joie(*somanassa*)'의 동의어이다.

489) les vagues, the waves, *taraṅga*, 波浪

490) des moines savants, the wise monks, *bahuśruta*, 多聞比丘

491) Les prédicateurs, preachers, *dharmabhāṇaka*, 說法者

492) aiguisée, keen, *tikṣṇa*, 利

493) émoussée, dull, *mṛdu*, 鈍

494) en toute sécurité, safely, *yogakṣema*, 安隱

495) *Ibid.*, p. 352 : *bhikkhu ye te bhikkhū bahussutā āgatāgamā dhammadharā vinayadharā mātikādhārā, te kālena kālam upasaṅkamitvā paripucchati idaṃ bhante katham, imassa ko attho 'ti ? tassa te āyasmanto avivatañ c'eva vivaranti, anuttānikatañ ca uttānikaronti, anekavihitesu ca kaṅkhāṭhāniyesu dhammesu kaṅkham paṭivinodenti*.

496) les tigres, the tigers, *vyāghra*, 虎狼

다. 빅슈도 이처럼 번뇌 그리고 악한 마라들인 맹수로부터의 보호처인, 네 전념 수행의 안전성을 알고 있다.⁴⁹⁸⁾ 이곳에 들어가면 불행 없는 안전지대를 알게 된다.

10) 우유 남길 줄 어떻게 아는가? 어미 소⁴⁹⁹⁾가 젖먹이 송아지⁵⁰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 키우는 사람은 어미의 젖을 [모두 짜지 않고] 일부를 남긴다. 그래서 어미 소가 기쁘고 송아지는 목마르지 않다. 소 주인과 먹이는 이가 날마다 이익을 얻는다. 빅슈도 이처럼 농부⁵⁰¹⁾와 재가불자⁵⁰²⁾가 옷⁵⁰³⁾과 음식⁵⁰⁴⁾을 공양할 때, 절제할⁵⁰⁵⁾ 줄 알아 소진하지 말아야 한다.⁵⁰⁶⁾ 그래야 보시자⁵⁰⁷⁾도 만족하여 신심⁵⁰⁸⁾이 끊이지 않으며 보시물⁵⁰⁹⁾을 누리는 이도 궁핍해지지 않는다.

11) 어떻게 소의 우두머리를 대접할 줄 아는가? 큰 소들을 특별히 지정하여 소 떼를 지키도록 한다. 이들을 잘 보살피고 보호하여 여위지 않도록 하고, [마]유⁵¹⁰⁾를 먹고, 고리⁵¹¹⁾를 걸어 주고, 쇠뿔⁵¹²⁾을 달아 표시하며, 솔로 쓸어주며 칭찬해주고 다정히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빅슈도 이처럼 붓다의 법칙을 보호하고 외도를 굴복시키고, 팔부중⁵¹³⁾이 선근을 심도록 이끄는, 상가의 위엄 있는 대덕들을 마땅히⁵¹⁴⁾ 섬기고⁵¹⁵⁾ 공양⁵¹⁶⁾한다.⁵¹⁷⁾

소먹이는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우리는 이 법들 가운데 서너 가지밖에 알지 못하고, 주인들 역시 대여섯 가지 이상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붓다의 말을 듣고 보니 기적⁵¹⁸⁾을 믿게 된다. 붓다가 소 키우는 기술을 알고 있다면 나머지 일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니, 그가 진정 일체지인임을 의심할 수 없구나.”

이 경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실려 있을 터이니, 우리는 그로 인해 일체지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음: 세상에 일체지인은 있을 수 없다. 아무도 일체지인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497) les lions, the lions, *simha*, 師子

498) des quatre applications de la mémoires, the four foundations of mindfulness, *mrityupasthāna*, 四念處

Ibid., p. 352: *bhikkhu cattaāro satipaṭṭhāne yathābhūtam pajānāti*.

499) la vache, the cow, *vatsā*, 犢母

500) son veau, her calf, *vatsa*, 犢子

501) les agriculteurs, the farmers, *vaisya*, 居士

502) les laïcs, the lay people, *avadātavasana*, 白衣

503) des vêtements, garments, *cīvara*, 衣

504) des aliments, food, *āhāra*, 食

505) garder la mesure, within bounds, *mātra*, 節量

506) *Ibid.*, p. 352 : *bhikkhu saddhā gahapatikā abhihaṭṭhum pavārenti cīvarapṭṇapātāsenāsanagilānapaccayabhesajaparikkhārena, tatra bhikkhu mattaṃ jānāti paṭiggahaṇāya*.

507) the generous patrons, the generous patrons, *dānapati*, 檀越

508) leur foi, their faith, *śraddhācitta*, 信心

509) leurs dons, their gifts, *pratigrāhaka*[라모트의 의역]

510) de l'huile, oil, *taila*, [麻]油

511) des anneaux, the rings, *keyūra(niṣka)*, 瓔珞

512) une corne de fer, an iron horn, *ayaḥśṛṅga*, 鐵角

513) l'octuple communauté, the eightfold community, 八衆

514) convenir, customary, *yathāyoga*, 宜

515) servir, serve, *satkaroti*, 恭敬

516) honorer, venerates, *pūjayati*, 供養

517) *Ibid.*, p. 353: *bhikkhu ye te bhikkhū therā rattajññū cirapabbaptā saṅghapīṭaro saṅghaparittāyakā, tesu mettaṃ kāyakammaṃ paccupaṭṭhāpeti āvī c'eva raho ca mettaṃ vacīkammaṃ. mettaṃ, manokammaṃ paccupaṭṭhāpeti āvī c'eva raho ca*.

518) le prodige, the miracle, *adbhuta*, 未曾有

답: 그렇지 않다. “볼 수 없음”은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 실제로 그 무엇이 있지만 가려져⁵¹⁹⁾ 있기에 보지 못한다. 이처럼 씨족⁵²⁰⁾의 기원, 히말라야의 무게,⁵²¹⁾ 갠지스 모래알⁵²²⁾ 수는 실재하지만 알 수 없다.

2. 실재하지 않는 것이 있으며, 실재하지 않기에 보지 못한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머리⁵²³⁾ 혹은 세 번째 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없는 것이기에 볼 수 없는 법이다. 이와 같이 일체지인은 가려져 있기에 보지 못할 뿐 없는 것은 아니다. 어찌하여 가려지는 것인가? 필수적 네 가지 믿음⁵²⁴⁾을 얻지 못하여 마음이 사악함에 집착하기⁵²⁵⁾ 때문이다.

물음: 알아야 할 것은 무량⁵²⁶⁾하므로 일체지인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법칙은 무량⁵²⁷⁾하고 무한하다. 많은 사람이 화합해도 알 수 없거늘 어찌 한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따라서 일체지인이란 없다.

답: 모든 법칙이 무량하다면 붓다의 지혜 또한 무량, 무수,⁵²⁸⁾ 무한하다. 마치 편지가 크면 봉투도 크고, 편지가 작으면 봉투가 작은 것과 같다.

물음: 붓다는 스스로 붓다의 법칙을 설했지만, 여타 학문 즉 의학,⁵²⁹⁾ 지리,⁵³⁰⁾ 천문,⁵³¹⁾ 계산,⁵³²⁾ 정치⁵³³⁾에 관해서는 말한 바 없다. 일체지인이라면 왜 일체 학문에 관해 말하지 않는가? 따라서 이러한 점으로 붓다가 일체 지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답: 비록 모든 것을 알아도 붓다는 필요한 것만을 말하고 불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을 뿐이다. 묻는 자 있으면 말하고 묻는 자 없으면 말하지 않는다.

또한 붓다는 모든 존재를 세 방식으로 요약하여 말한다.⁵³⁴⁾ 1. 조건적 존재⁵³⁵⁾ 2. 무조건적 존재⁵³⁶⁾ 3. 표현 불가 존재.⁵³⁷⁾ 이들은 모두 일체 존재에 속한다.

519) cachée, hidden, gūḍha, 覆

520) le clan, the clan, *gotra*, 姓族

521) le poids, the weight, *gurutva*, 斤

522) le nombre des grains de sable du Gange, the number of grains of sand of the Ganges, *gaṅgānadivālukāsamkhyā*, 兩恒河邊沙數

523) une seconde tête, a second head, *dvitiya śirṣaka*, 第二頭

524) les quatre sortes de foi, four kinds of faith, *prasāda*, 四信心

불교의 진실을 수반하며 증정(*avetyaprasāda*, 證淨)이라 불리는 네 가지 믿음 유형: 붓다에 관한 믿음, 다르마에 관한 믿음, 상가에 관한 믿음 그리고 성인들에게 소중한 도덕에 관한 믿음(*āryakāntāni sīlāni*). *Dīgha*, III, p. 227; *Majjima*, I, p. 37, 46; II, 51; III, p. 253; *Saṃyutta*, II, p. 99; IV, p. 271, 304; V, p. 343, 409; *Aṅguttara*, I, p. 222; II, p. 56; III, p. 212, 332, 451; IV, p. 406; V, p. 183; *Avadānaśataka*, II, p. 92; *Madh. vṛtti*, p. 487; *Mahāvīyūtpatti*, no. 6823; *Bodh. bhūmi*, p. 161, 327; *Kośa*, VI, p. 292; *Kośavyākhyā*, p. 605.

525) s'attacher, attached, *abhiniviṣate*, 著

526) innombrables, innumerable, *apramāṇa*, 無量

527) infinis, infinite, *ananta*, 無邊

528) incalculable, *asaṃkhyeya*, 無數

529) la médecine, the medicine, *bhaiṣjyadī*, 藥

530) la géographie, the geography, *bhūgolavidyā*, 方

531) l'astronomie, the astronomy, *īyotisa*, 星宿

532) le calcul, the arithmetic, *gaṇanā*, 算

533) la politique, the politics, *nīti*, 經世

534) en résumé, in general, *samāsataḥ*, 略

535) choses conditionnées, conditioned phenomena, *saṃskṛtadharma*, 有爲法

536) choses inconditionnées, unconditioned phenomena, *asaṃskṛtadharma*, 無爲法

537) choses indicibles, inexpressible phenomena, *avācyadharma*, 不可說法

물음: 붓다는 어려운 열네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⁵³⁸⁾ 고로 일체지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려운 열네 물음이란 어떤 것들인가?

(1~4)세계와 나는 영원한가?⁵³⁹⁾ 세계와 나는 영원하지 않은가?⁵⁴⁰⁾ 세계와 나는 영원하면서 영원하지 않은가? 세계와 나는 영원하지 않으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것인가?(*Śāsavato lokaś cātmā ca, aśāsavato lokaś cātmā ca, śāsāvataś cāśāsāvataś ca lokaś cātmā ca, naiva śāsavato nāśāsāvatas ca lokaś ca*)

(5~8) 세계와 나는 끝이 있는가?⁵⁴¹⁾ 끝이 없는가?⁵⁴²⁾ 세계와 나는 끝이 있으면서 없는가? 세계와 나는 끝이 있는 것도 아니요, 끝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인가?(*Antavān lokaś cātmā ca, anantavān lokaś cātmā ca, āntavāṃa cānantavāṃś ca lokaś cātmā ca, naivāntavān*)

538) 이 열네 가지 난제는 종종 기존 교학에서의 '보류 혹은 불확정 열네 항목 (*caturdaśāvvyākrtavastūni*)'으로 지칭되었다. *Madh. vṛtti*, p. 446; *Madh. avatāra*, p. 250~251(tr. Lav. Muséon, 1911, p. 297~298; *Kośa*, V, p. 43 참조.

*Madhyamāgama*의 빠알리 및 한역(T 26)은 열 난제만 수록하고 있다. (1~2) 세계는 영원하다,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Sassato loko, asassato loko*). (3~4)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Antavā loko, anantavā loko*), (5~6) 생명은 몸이다(*Taṃ jīvaṃ taṃ sarīraṃ*), 생명과 몸은 다르다(*aññaṃ jīvaṃ aññaṃ sarīraṃ*). (7~10) 여래는 사후에도 있다(*Hoti tathāgato paraṃ marāṇā*), 여래는 사후에 없다(*na hoti tathāgato paraṃ marāṇā*), 여래는 사후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hoti ca na ca hoti tathāgato paraṃ marāṇā*), 여래는 사후에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neva hoti na na hoti tathāgato paraṃ marāṇā*). *Dīgha*, I, p. 187~188은 가장 빈번하게 이 양식을 취한다; *Majjhima*, I, p. 157, 426, 484; *Samyutta*, III, p. 213~216; III, p. 258; IV, p. 280, 391~392; V, p. 418. *Tchong a han*, T 26 (n° 221), k. 60, p. 804 b(*Majjhima*, I, p. 426에 상응)도 이 양식을 취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역 니까야는 이미 열네 난제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빠알리 경전이 열 관점만 다루는 반면, 한역 쌍웃따는 열네 관점을 열거한다: *Tsa a han*, T 99(n° 962), k. 34, p. 245 c(*Majjhima*, I, p. 484에 상응); *ibid.*, (n° 963), k. 34, p. 246(*Samyutta*, III, p. 258에 상응); *ibid.*, (n° 968), k. 34, p. 248 c(*Anguttara*, V, p. 186에 상응); *ibid.*, (n° 408), k. 16, p. 109 a~b(*Samyutta*, V, p. 418에 상응). — 열네 난제의 약본이 실린 한역 *Samyukta*, T 100(no. 196), k. 10, p. 445 a; (n° 202), k. 11, p. 448 c. — *Dīgha* 한역본 역시 두 난제 13~14의 보충 물음을 추가하여 열여섯 난제를 다룬다: *Tch'ong a han*, T 1 (n° 28), k. 17, p. 11 l a(*Dīgha*, I, p. 187~188에 상응). — 기존 교학 논서들처럼 Mppś는 열네 난제를 수용한다.

아주 드물게 몇몇 경전들(*Dīgha*, I, p. 16; III, p. 137; *Majjhima*, II, p. 233)은 처음 여덟 양식에 포함된 단어 '*loka*' 앞에 '*attā*(영혼)'를 추가하여 열네 양식에 변화를 준다. 예를 들어, 세계와 영혼은 영원한가, 세계와 영혼은 영원하지 않은가(*sassato attā ca loka ca, asassato attā ca loka*), etc. — 이러한 변화는 Mppś에도 적용되었다. — [*Ekottara*의 한역본에는 비정상적 양식도 보인다: *Tseng yi a han*, T 125, k. 43, p. 784 b: 자아는 있는가? 자아는 없는가? 있으면서 동시에 없는가? 세계는 영원한가? 세계는 영원하지 않은가? 세계는 유한한가? 세계는 무한한가? 생명의 근본(le principe vital, the soul) 육신과 같은 것인가? 여래는 죽는가? 여래는 죽지 않는가? 죽음은 있는가? 죽음은 없는가?

붓다는 항상 이러한 물음들에는 답을 거부했다. 몇몇 인도학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근거로 붓다가 불가지론자임을 주장하였다. 몇몇 학자들은 붓다의 불가지론에 니힐리즘이 내포한다고 추정한다. 인류를 걱정하는 거대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것은 그가 내심 부정적으로 답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늘 행복한 니르바나를 변호한 드 라 발레 푸생은 자신의 논문 *Agnosticisme*, ERE, I, p. 220~225 및 간략한 저술 *Nirvāna*, Paris, 1923, p. 85~129에서 이러한 현대적 해석을 소개하고 논평하였다. 아마도 형이상학보다는 금욕주의에 더 관심을 보인 원시불교는 이러한 물음들을 제기하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물음들이 붓다에게 제기되었을 때, 그는 이러한 물음들이 구원의 근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 이 물음들을 무익한 것 심지어 위험한 것으로 상정한 나머지 물음을 비켜갔다.

539) éternels, eternal, 常

540) non-éternels, non-eternal, 無常

541) finis, finite, 有邊

542) infinis, infinite, 無邊

nānantvāṃś ca lokaś cātmā ca)

(9~12) 죽고 나면 여래(혹은 욕망해서 벗어난 현자)가 있는가? 없는가? 죽은 뒤에 여래는 있으면서 없는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가?(*Bhavati tathāgataḥ paraṃ maraṇān na bhavati tathāgataḥ paraṃ maraṇād bhavati ca na bhavati ca tathāgataḥ paraṃ maraṇān naiva bhavati na na bhavati ca tathāgataḥ paraṃ maraṇāt*)

(13~14) 생명의 근본⁵⁴³은 몸과 같은가? 다른가?(*Sa jīvas tac charītam, anyo jīvo 'nya charīram*).

만약 붓다가 일체지인이라면 이 열네 물음에 왜 답하지 않는가?

답: 1. 이 물음들은 헛된 것이기에 답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라고 반드시 영원해야 하는 것도 아니요,⁵⁴⁴ 존재의 소멸⁵⁴⁵ 역시 더욱 그렇다. 붓다가 이에 답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것은 마치 소뿔⁵⁴⁶에서 우유를 몇 리터⁵⁴⁷ 짜낼 수 있을지 문듯 문젯거리가 되지 않아 답할 필요 없다. 더구나 세계⁵⁴⁸는 끝없으며⁵⁴⁹ 수레바퀴⁵⁵⁰ 같아 시작도 끝⁵⁵¹도 없다.⁵⁵²

2. 또한 이러한 물음에 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쁜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⁵⁵³ 붓다는 이 열네 난제가 늘 사성제⁵⁵⁴와 모든 존재의 진정한 특성⁵⁵⁵을 가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

543) Le principe vital, the life-principle, 神

544) ne pas s'imposer, unnecessary, *ayukta*, 無此理

545) leur anéantissement, their cessation, *uccheda*, 諸法斷

546) une corne de vache, a cow's horn, *gosrnga*, 牛角

547) du lait, milk, *kṣīra*, 乳

548) l'univers, the universe, *lokadhātu*, 世界

549) pas de terme, no end, *anavastha*, 無窮

550) la roue d'un char, a chariot wheel, *rathacakra*, 車輪

551) ni début ni fin, no beginning and no end, *apūrvācarama*, 無初無後

552) 첫 번째 요지는 처음 제기한 일련의 두 물음에 관한 답이다: “세상은 영원한가, 등”, “세상은 끝이 있는가?”

첫 물음은 거부되어야 한다. 상견(*śāśvatadrṣṭi*)과 단견(*ucchedadrṣṭi*)에 대한 비판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Udāna*, p. 33 참조: *ye hi keci samaṇā vā brāhmaṇā vā bhavena bhavassa vippaniokkham āhamsu, sabb'ete avippamuttā bhavasmā 'ti vadāmi. ye vā pana keci samaṇā vā brāhmaṇā vā vibhavana bhavassa nissaraṇam āhamsu, sabb'ete anissaṭā bhavasmā 'ti vadāmi*. TTR. 고행자나 브라흐마가, -더 나아가- 연속성을 통한 연속성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들 모두 연속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나는 말하련다. 또는 고행자나 브라흐마가, 불연속성을 통한 연속성으로부터의 도피에 관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들 모두 연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나는 말하련다).- 티베트 *Tibetan Udānavarga XXXII*, 40, p. 136의 동일한 구절: *dge sbyoñ bram ze ji sñed pa | srid pas srid las ñes hbyuñ zer | dedag thams cad srid pa las | ñes hbyuñ mi śes brjod par bya |* TTr. 자신들이 윤회로부터 결정적으로 벗어났다고 말하는, 이 모든 승려들과 브라흐만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님이 설명되어야 한다. - *Madh. vṛtti*, p. 530: *Ye kecid bhikṣavo bhavena bhavasya niḥsaraṇam paryeṣante vibhavana vā 'parijñānam tat teṣam iti. ubhayaṃ hy etat parityāiyam bhava tṛṣṇā ca*.

둘째 물음 역시 거부되어야 하는데, 세계가 끝을 용납하지 않거니와 이로 인해 끝과 끝없음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계(*loka*)'는 우주를 의미한다. 하지만 *Kośa*, IX, p. 267에서 세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혼(*l'âme*, the soul, *ātman*)'을 다른 이들에게는 윤회(*la transmigration*, *saṃsāra*)를 의미한다].

553) 이 두 번째 요지는 일련의 넷째 물음 “생명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답은 질문자의 의도에 달려 있다. 영혼의 존재를 믿는 와짜고따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파군나와는 다른 답을 요구하고 있다. 앞의 내용(LMpps p.32. n. 3, 각주 426) 참조.

554) les quatre vérités, the four truths, *catur āryasatya*, 四諦

건널 곳에 해충이 있으면 사람이 건너지 못하게 하고, 안전하고⁵⁵⁵⁾ 위험이 없는⁵⁵⁷⁾ 곳으로 건너도록 이끌어야 한다.

3. 또한 어떤 이들은 말하길, 이 물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일체지인 뿐이기에 다른 이들은 알 수 없어 붓다가 답하지 않았다고도 한다.⁵⁵⁸⁾

4.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없는 것⁵⁵⁹⁾을 있는 것⁵⁶⁰⁾이라 하고, 있는 것을 없는 것이라 한다. 이들은 ‘일체지인’이 아니다. 일체지인은 있는 것을 있는 것이라 하고, 없는 것을 없는 것이라 한다. 붓다는 있는 것을 없는 것이라 하지 않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 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모든 존재의 진정한 특성만을 설한다. 왜 일체지인이라 할 수 없겠는가? 태양⁵⁶¹⁾이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계곡을 만들지 않고, 들판도 만들어 내지 않건만 태양은 이들을 균등하게 비춘다. 붓다도 이처럼 있는 것을 없게 하거나 없는 것을 있게 하지 않는다. 항상 진실⁵⁶²⁾을 말하며, 예지의 빛⁵⁶³⁾은 제법을 밝힌다. 그것은 마치 유일한 길⁵⁶⁴⁾ 같다. 사람들이 붓다에게 열두 원인·조건⁵⁶⁵⁾[혹은 ‘*pratīyasamutpāda*, 緣起’]을 붓다가 만들었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인지 묻자 붓다는 답한다: “열두 원인·조건은 내가 만든 것도 다른 사람이 지어낸 것도 아니다. 붓다가 있건 없건 태어남⁵⁶⁶⁾은 늙고 죽음⁵⁶⁷⁾의 원인·조건이니, 이것이 바로 영원하며 지속적인 법이다.”⁵⁶⁸⁾ 붓다는 태어남이 늙음과 죽음의 원인이며, [원인 사슬의]종국에 이르러서

555) le Vrai caractère, the true nature, *satyalakṣhaṇa*, 實相

556) un endroit sûr, safe, *yogakṣema*, 安隱

557) sans danger, without danger, *anupadrava*, 無患

558) 어떤 불자들은 불가사의함을 이해하려 들기보다 의도적으로 ‘소박한 신념(la foi du charbonnier, the charcoal-burner’s faith)’에 빠져든다. *Samdhinirmocana*, VII, 19, p. 200 참조. 어떤 사람들은 불교 문구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문구에 동조하고 그것을 믿는다. 동조하는 이들의 변: “세존의 설법은 심오하다...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다...하지만 붓다의 지혜는 심오하며, 존재들의 본질 또한 심오하다. 여래는 알아도 우리는 모른다. 붓다의 설법은 신앙 정도에 따라 소통된다.” – *Śikṣasamuccaya*(『大乘集菩薩學論(學集論)』) p. 55의 *Ratnakūta* 인용문: *yeṣu cāsyā gambhīreṣu buddhir navagāhate, taira tathāgata eva sākṣti kṛtvā na pratikṣipati. tathāgata eva jānīte nāhām jāne anantā buddhabodhir, nānādhimuktikatayā tathāgatānām sattveṣu dharmadēānā pravartatata iti*. TTr. 또한 이분의 생각은 매우 심오하다. 이와 관련하여 오직 여래만이 증인이라 생각하며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직 여래만이 알고 있을 뿐 나는 알 수 없다. 붓다의 깨달음은 한량없으니 그 설법은 여러 믿음과 이해에 따라 전달된다.

559) non-existent, inexistant, *asat*, 無

560) ce qui est, existant, *sat*, 有

561) le soleil the sun, *sūrya*, 日

562) la vérité, the truth, *satya*, 實

563) l’éclat de sa sagesse, the brilliance of his wisdom, *prajñāloka*, 智慧光

564) un chemin unique, a unique path, *ekamārga*, 一道

565) la loi des douze causes, the twelve-membered law, 十二因緣

566) la naissance, the birth, *jāti*, 生

567) la vieillesse et la mort, the old age and death, *jarāmaraṇa*, 老死

568) Mppś(k. 32, p. 298 a)는 다시 이 경으로 돌아가 이 부분을 언급하게 된다: *Tsa ahan(Saṃyuktāgama)*에서 언급하듯이, 한比丘는 붓다에게 열두 원인·조건 법칙이 붓다 혹은 다른 이가 만든 것인지 묻는다. 붓다는比丘에게 이렇게 답한다. “내가 만들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만들지 않았다. 부처들이(les Buddha) 있든 없든, 모든 존재(les Dharma, the dharmas)의 ‘존재의 특성’(cette Nature de dharma, his dharma-nature), 모든 존재의 본질은 지속한다(*utpādād vā tathāgatānām anutpādād vā tathāgatānām sthitaiveyaṃ dharmānām dharmatā dharmasthitā*).” 왜냐하면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기 때문이다; 저것의 생겨남으로, 이것이 생겨난다. 즉 무지에서 생겨남이 나온다. 생겨남에서 인식이 나온다; 그렇게 계속되어 [태어남에서] 늙음과 죽음, 고통과 탄식, 괴로움, 슬픔과 절망이 나온다. 그 모든 고통의 무리의 기원이 이리하다.(*yad uta asmin satīdam bhavati, asyotpādād idam utpadyate: yad idam avidyāpratyayāḥ saṃskārāḥ, saṃskārapratyayaṃ vijñānaṃ yāvaj jātipratyayā jarāmarāṇasokaparidevaduḥkhadaurmanasyopāyāsāḥ sambhavanti: evam asya kevalasya*

는, 무지⁵⁶⁹)가 생겨남⁵⁷⁰)의 원인·조건임을 설하였다.

5. 또한 이 어려운 열네 물음에 답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석녀와 내관⁵⁷¹)의 아이가 큰지 작은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를 묻는 데 답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데, 이러한 아이는 없기 때문이다.

6. 또한 이 열네 물음에 답하는 것은 그릇된 관점⁵⁷²)이라 진실하지 않다. 붓다는 늘 진실만을 살피기에 멈추고는⁵⁷³) 답하지 않는다.

7. 결국 답하지 않고 제껴 버리는 것이 답이다. 답하는⁵⁷⁴) 방법은 네 가지이다. a) 단호히⁵⁷⁵) 답하기, 예를 들어 붓다, 절대,⁵⁷⁶) 니르바나,⁵⁷⁷) 안위⁵⁷⁸)[와 관련한 문제의 경우 이렇게 답한다], 2) 특징지어 답하기,⁵⁷⁹) 3) 되물어 답하기,⁵⁸⁰) 4) 무응답으로 답을 대신하기.⁵⁸¹) 여기에서 붓다는 무응답으로 답한다.⁵⁸²)

그대는 일체지인이 없다 한다. 그렇게 말 할 수 있어도 전혀 무의미한 말이 되므로 이는 심각

mahato duḥkhaskandhasyotpādo bhavati). 역으로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저것의 없앰으로 이것이 없어진다. 즉 무지의 없앰으로 생겨남이 없어진다. 생겨남의 없앰으로 인식이 없어진다. 그렇게 [태어남의 없앰으로] 늙음과 죽음, 고통과 탄식, 슬픔, 비통과 절망이 없어진다. 그 모든 고통의 무리의 없앰이 이러하다(*tatrāvidyānirodhāt saṃskāranirodhāḥ, saṃskāranirodhād vijñānanirodho yāvaj jātinirodhāj jarāmaraṇasokaparidevaduḥkhadaurmanasyopāyāsā nirudhyante: evam asya kevalasya mahato duḥkhaskandhasya nirodho bhavati*).

이 경은 빠알리 쌍옷다니까야에는 없고 한역 쌍옷다가마(*Tsa a han*, T 99 no. 299, k. 12, p. 85 b~c)와 정확히 상응하며, *Kiu-lieou-cheou Tiao-nieou-tsiu-Id(Kuruṣu Kalmāśadamyanigama)*에 나온다. 이 경에 특별한 것은 없다. 다만 서두에서 연기는 자신이나 다른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붓다가 확인해준다. 나머지 부분은 빠알리 경전에서만큼 산스크리트 경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 상투적 표현 문구의 축적이다. 저 유명한 경구 *'utpādād vā tathāgatānām*(여래들이 이 세상에 오든')이 변형되어 몇 차례 등장한다: *Samyutta*, II, p. 25(*Tsa a han*, T 99, no. 296, k. 12, p. 84 b 참조); *Ānguttara*, I, p. 286; *Visuddhimagga*, p. 518; *Śalistambasūtra* in Lav., *Théorie des douze causes*, Gand, 1913, p. 73; *Aṣṭāsāhasrikā*, p. 274; *Laṅkāvatāra*, p. 143; *Kośavyākhyā*, p. 293; *Madh. vṛtti*, p. 40; *Pañjikā*, p. 599; *Śikṣāsamuccaya*, p. 14. *Daśabhūmika*, p. 65. - 루이 드라 발레 푸생(위의 저술 p. 109) 역시 브라흐만 출전들에서 위의 내용을 발견하였다: *Bhāmatī ad II*, 2, 19; *Tantravārtitika*(BSS, p. 163).

569) l'ignorance, the ignorance, *avidyā*, 無明

570) les formations, the formations, *saṃskāra*, 諸行

571) le fils d'une femme stérile et d'un eunuque, a son of a barren woman and a eunuch, *vandhyāpaṇḍakaputra*, 石女黃門兒

572) des vues fausses, wrong views, *mithyādrṣṭi*, 邪見

573) s'arrêter, stops, *sthāpayati*, 置

574) répondre, answering, *vyākaraṇa*, 答

575) Répondre d'une manière catégorique, answering in a categorical way, *ekāṃśena vyākaraṇa*, 決了答

576) l'Absolu, the absolute, *parama*, 第一

577) le Nirvāna, 涅槃

578) la Sécurité, the salvation, *yogaśema*, 安隱

579) répondre en distinguant, answering by distinguishing, *vibhajavyākaraṇa*, 解義答

580) répondre en posant une question, answering by asking a question, *paripṛcchavyākaraṇa*, 反問答

581) répondre en ne répondant pas, answering by not replying, *sthāpanīavyākaraṇa*, 置答

582) 이 네 대답 방식(*pañhavyākaraṇa*)을 기술한 경전들: *Dīgha*, III, p. 229; *Ānguttara*, I, p. 197; *Milinda*, p. 144; *Tch'ang a han*, T 1, k. 8, p. 51 b 1; *Tchong a han*, T 26, k. 29, p. 609 a. 이 경전들은 단언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물음(*ekaṃsavākaṇīyo pañho*), 되물어 설명해야 하는 물음(*vibhajavyākaraṇīyo pañho*), 분석해서 설명해야 하는 물음(*paṭipucchavyākaraṇīyo pañho*), 제쳐버려야 하는 물음(*sthāpanīyo pañho*)을 구별하고 있다. 여기에 재수록된 산스크리트 문구의 출전은 *Mahāvvyutpatti*, n° 1658~1661이다. - *Kośa*, V, p. 44~47의 정의(Définitions)와 예들(exemples).

한 비방⁵⁸³)이다. 일체지인은 실재한다. 왜 그러한가? 그는 열 가지 힘⁵⁸⁴ 얻어, 가능한 것⁵⁸⁵과 불가능한 것⁵⁸⁶ 알고, 원인·조건⁵⁸⁷과 행위의 응보⁵⁸⁸ 알고, 사마디⁵⁸⁹와 해탈⁵⁹⁰ 알고, 존재의 선하고 악한 능력⁵⁹¹ 알고, 온갖 욕망으로부터 벗어남⁵⁹² 알고, 온갖 세간의 (*śing*, 38 및 5) 무량한 특성⁵⁹³ 알고, 모든 토대⁵⁹⁴와 이에 이르는 길⁵⁹⁵ 알고, 전생⁵⁹⁶에서의 존재의 행위⁵⁹⁷와 생각⁵⁹⁸ 알고, 신성한 눈의 분별⁵⁹⁹ 얻고, 온갖 불순함의 파함⁶⁰⁰ 알고, 선⁶⁰¹과 악⁶⁰² 분명하게 구분하고, 온갖 세계⁶⁰³에서 우수한 법칙⁶⁰⁴ 설하고, 감로 맛⁶⁰⁵ 얻고, 중도 얻고,⁶⁰⁶ 조건적 존재⁶⁰⁷이건 무조건적⁶⁰⁸ 존재이건, 진정한 특성 알고, 삼계⁶⁰⁹의 욕망 영원토록 떠나니, 이 모든 이유로 붓다는 일체지인이다.

물음: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일체지인이 있다면 누가 일체지인이란 말인가?

답: 그는 최고⁶¹⁰ 위대한 인간,⁶¹¹ 삼계의 존엄,⁶¹² 이름하여 붓다라 한다.

「찬불계」⁶¹³는 이렇게 설한다.

정생왕⁶¹⁴ 그리고 전륜성왕,⁶¹⁵

583) une grave calomnie, a serious falsehood, *mṛṣāvāda*, 妄語

584) les dix forces, the ten powers(*bala*), 十力

585) le possible, what is possible, *sthāna*, 處

586) l'impossible, what is impossible, *asthāna*, 非處

587) les causes et conditions, the causes and conditions, *hetupratyaya*, 因緣

588) la rétribution des actes, the retribution of action, *karmavipāka*, 業報

589) les concentrations, the samādhis, *samādhi*, 禪定

590) les délivrances, the deliverances, *vimokṣa*, 解脫

591) les facultés bonnes ou mauvaises des êtres, the good or bad faculties of beings, *sattvendriyavarāvara*, 衆生根善惡

592) les diverses sortes de délivrance du désir, the various kinds of deliverances from desire, *nānāvidharāganirmokṣa*, 種種欲解

593) les innombrables lignées de toutes les sortes d'univers, the innumerable lineages and of all the types of universes, *nānāvidhalokadhātvaḥpramāṇagotra*, 種種世間無量性

594) les résidences, the abodes, *vihāra*, 處

595) leurs chemins, their path, *mārga*, 道

596) leurs existences antérieures, their previous existences, *pūrvajanma*, 前世

597) la conduite, the conduct, *caryā*, 行

598) les réflexions, the thoughts, *manasikāra*, 憶念

599) le discernement de l'œil divin, the discrimination of the divine eye, *divyacakṣurvyakti*, 天眼分明

600) la destruction de toutes les impuretés, the cessation of all the impurities, *sarvāsravaḥśaya*, 一切漏盡

601) le bien, the good, *śubha*, 淨

602) le mal, the bad, *aśubha*, 不淨

603) les univers, the universes, *lokadhātu*, 世界

604) une loi supérieure, a supreme doctrine, *agraḍharma*, 上法

605) la saveur de l'ambrosie, the taste of ambrosia, *amṛtarasa*, 甘露味

606) le chemin du milieu, the middle path, *madhyamā pratipat*, 中道

607) conditionnés, conditioned, *saṃskṛta*, 有爲

608) inconditionnés, unconditioned, *asaṃskṛta*, 無爲

609) les trois mondes, the three worlds, *trailokyārāga*, 三界

610) le Suprême, the supreme one, *parama*, 第一

611) le Grand Mâle, the Great Man, *mahāpuruṣa*, 大人

612) le Vénérable des trois mondes, the one who is venerated in the three worlds, *trailokyajyeṣṭha*, 三界尊

613) les Tsan fo kie, Buddhastotragāthā, 讚佛偈

붓다는 해와 달의 섬광 닮고.
고귀한 샤카족 후손이며,
슈도다나 왕의 태자라네.

태어나서는 수메루 삼천 봉우리를
휩고 바닷물을 요동치게 하고,
늡음, 병, 죽음 파하려,
애달픈 연민의 심정으로 세상에 나투었다네.

태어나 일곱 걸음 내딛고,
온갖 세계 그 빛으로 가득 채우고,
네 번 둘러보고 포효하는 말:
“이제 모태 탄생 모두 끝냈으니,

붓다 이루어 경이로운 법칙 설하고,
법칙의 북소리 크게 울려,
그 소리로 무명의 잠에 빠진,
존재와 세계 일깨우리.”

그토록 갖가지 형태로,
신비로움⁶¹⁶ 나타내 보이도다.
신들과 세상 사람,
이를 보고 환희에 잠기네.

붓다, 자신의 몸 장엄하니,
얼굴에 큰 빛 넘쳐라.
남녀 모두 한결같이,
보고 또 보아도 질릴 줄 모르네.

태어나 젓 먹고 밥 먹던 힘,
나유타⁶¹⁷ ‘향 코끼리’⁶¹⁸마저 능가하도다.
그 ‘기적’⁶¹⁹의 힘 최상이요,
‘지혜’⁶²⁰의 힘 무한하네.

붓다의 광대한 빛

614) Premier-né, First-born, *mūrdhaja*, 頂生

615) le roi Cakravartin, the king cakravartin, 轉輪王

616) les prodiges, the miracles, *adbhuta*, 希有事

617) un nayuta, a nayuta, 勝萬億

618) *gandhahastin*, 香象

619) *ṛddhipāda*, 神足力

620) *prajñā*, 無上

밖으로는 그 몸을 밝히고,
이 광명 가운데 붓다는,
마치 장엄함에 둘러싸인 달 같도다.

온갖 방법으로 해하려 든들,
붓다는 고통 전혀 모르고,
온갖 방법으로 치켜세워 본들,
붓다는 희열 전혀 느끼지 않네.

모두에게 큰 ‘자비’⁶²¹⁾ 펼쳐지고,
원수도 친척도, 모두 다 경계를 허무네.
온갖 지혜로운 무리
그 위력 모두를 알고 있나니.

‘인내’⁶²²⁾ ‘모욕’⁶²³⁾ ‘자애’⁶²⁴⁾ ‘연민’⁶²⁵⁾의 힘으로
온 누리 정복하네.
존재를 구원하러,
생애 겹겹 노력과 고통을 감수하네.

존재의 이로움 향한
그 마음 항상 결연하여라.
열 가지 ‘지혜’의 ‘힘’과
네 가지 확신⁶²⁶⁾의 힘 품었네.

붓다만의 독자적⁶²⁷⁾ 열여덟 특성,
더불어 무한한 공덕⁶²⁸⁾ 품었다네
이렇도다, 붓다의 셀 수 없는,
불가사의 공덕.

이렇게 사자는 한점 두려움 없이,
온갖 외도들 체계 부수어 버리네.
붓다는 최상 법칙 수레 굴러,
삼계를 구하고 해탈시키노라.

621) *maitrī*, 大慈

622) *kṣantī*, 忍

623) *lajjā*, 辱

624) *maitrī*, 慈

625) *karuṇā*, 悲

626) l'assurance, the fearlessnesses, *vaiśradya*, 無畏

627) exclusifs, special, *āveṇika*, 希有

628) qualités, qualities, *guṇa*, 功德

그 이름 바가와뜨라. 이 말의 의미⁶²⁹⁾ 무량하여⁶³⁰⁾ 상세히 풀이하자면 나머지 요지들 풀이를 포기해야 하리. 이런 연유로 여기에서는 이에 관해 간략하게⁶³¹⁾ 설해보았다.

629) le sens, the meaning, *artha*, 義

630) immense, *apramāṇa*, 無量

631) sommairement, in general, *samāsataḥ*, 略